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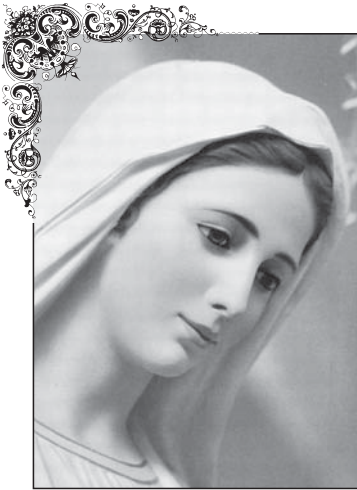


The Queen of Peace

평화의 모후

2011, 12 / 제62호

Queen of Peace Missionaries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가 너희를 바라보고 있노라니,
 너희의 마음안에 기쁨이 보이지 않는구나.
 오늘 나는 당신의 사랑과 부드러움으로 너희를 감싸고 이끌어 주시는
 부활하신 그분의 기쁨을 전해 주고 싶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며 너희의 회개를 위하여
 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단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주어 고맙다"

2011년 10월 25일 성모님의 메시지

- 3 성모님과 함께 드리는 기도
- 4 우리를 하느님과 묶어 주는 성모님의 묵주기도
복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9. 모든 기억과 상처들을 치유깨끗하게 치유해주소서
슬라브코 버르버라차 신부
12. 모두가 내게 봉헌하여 주기 바란다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 사제들에게
- 14 예수님과 함께 하는 성체조배의 은총
- 18 이곳에 내 하느님의 어머니가 계시는구나
요조 조브코 신부
21. 당신안에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체험하십시오
발현 목격증인 야콥출로
24. 사탄을 천국으로 승천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데니스 크루트 주교
28. 용서는 자신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안야 골레치노브스카
3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도미니코 마쉐리
32. 나의 삶을 변화시킨 메주고리에
윤일모
- 35 십시일반후원회원 명단과 쉼터



표지 설명 :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성화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느님의 자녀들이 지상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영원한 도움으로 늘
 굳건히 보살펴 주시는 하느님의
 어머니이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원한 도움을 주시는 성모님,
 길의 인도자, 기적의 성모님등으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공경을 받아 왔습니다.

평화의 모후 선교회

홈 페이지를 방문하시면 2001년 1월 부터 발행된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에' 와 '평화의 모후' 최근호 및
 '2012년 성지 순례 일정' 을 보실 수 있습니다.
 e-mail: qpmm.org@gmail.com / www.qpmm.org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

- 성모님의 특별한 지향과 구원을 위하여 ...
- 평화의 모후 선교회와 어머니 마을을 위하여...
- 선교회 지도 신부님과 모든 사제들을 위하여...
- 척추 수술을 한 〇〇〇의 건강을 보살펴 주소서.
- 언니와 동생 가정의 안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주님, 아들의 컴퓨터 게임중독을 치유해주세요.
- 불안한 현실적 두려움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 성모님, 선교회의 봉사자와 회원들을 봉헌합니다.
- 성모님, 가는 귀가 먹은 할머니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 성모님, 다시 간호사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가족들의 영육간 건강과 내적치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 작은 아들의 영육간의 치유와 성모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 오랫동안 냉담자로 있는 남편을 봉헌하며 기도합니다.
- 00가 좋은 반려자를 만나 성가정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 냉담자인 제가 하느님의 자비로 굳은 믿음을 갖게해주세요.
- 남편에게 건전한 직업을 주시어 가정이 안정되게 해주소서.
- 성모님, 올해는 드림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 결혼한지 7년이 된 00부부가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남편과 시어머님이 화해하고 가정에 평화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저희 가정이 시련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소서
-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찾고 있는 아들을 위하여 기도부탁드립니다.
- 성모님, 동생의 우울증 치료와 가족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빌어주세요.
-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 드릴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평화를 주소서.
- 성모님, 베드로가 냉담을 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가정을 이루어 주소서.
- 성모님, 동생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천주교회로 입교하도록 빌어주소서.
- 성모님, 동생을 지켜 주시고 모든 것을 봉헌하오니 당신의 사랑과 은총을 주소서.
- 성모님, 치매 치료 중이신 아버님과 항암 치료 중이신 장모님을 보살펴주세요.
- 새 학기를 시작하는 딸이 교사로서 책임과 봉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청합니다.
- 모든 악의 유혹과 시험에서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며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 저의 노부부의 남은 여생을 봉헌하오니 근심 걱정없이 마음 편히 살다 죽게 하소서.
- 세상을 떠나신 모든 영혼들과 제일 버림을 받은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 주님, 화목한 성가정을 이루고 이웃에 기쁨을 주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 힘든 일을 많이 겪은 딸이 성모님의 은총으로 고해 성사를 보고 미사에 참석 하길 기도합니다.
- 성모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가게를 정리하고 노년을 잘지내도록 도와주세요.
- 성모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애쓰는 자녀들을 봉헌하오니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소서,

-
- 11월, 12월 메주고리에 순례 때에 모든 기도지향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합니다.
 - 성모님의 매일 발현을 보는 목격자 비스카에게 기도지향들을 전달하여 성모님의 축복을 청했습니다.
 -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신부님께서 지면상 이곳에 올리지 못한 모든 기도 지향들도 함께 미사를 봉헌해 주셨습니다.
 - 모든 미사와 기도지향들을 매월 첫 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때 봉헌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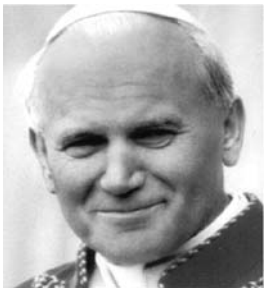


우리를 하느님께 묶어주는 성모님의 묵주기도

('동정마리아의 묵주기도'는 교황 요한바오로 2세께서 2002년 10월부터 2003년 10월까지를 '묵주기도의 해'로 선포하시며, 성모마리아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관상하고 복음의 핵심에 다가가는데 묵주기도가 매우 훌륭한 방법임을 역설하신 것입니다. -편집자주-)



복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주님의 기도'

32. 하느님의 말씀에 귀기울이고 그 신비에 집중한 다음에, 마음을 하느님아버지께 들어 높이는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신비안에서 우리를 하느님께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 품안에 계시면서 (요한1,18) 끊임없이 하느님을 향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도 당신과 함께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로마 8,15;갈라4,6)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느님아버지의 내밀한 친교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께서 아버지와 맺는 관계의 힘으로 우리를 당신의 형제자매로 삼으시고, 우리도 서로 형제자매가 되게하시며, 당신의 영이시자 성부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성모송을 반복하며 그리스도와 성모님을 묵상하는 토대로 놓인 주님의 기도는 따로 바치더라도 신비에 대한 묵상전체가 교회의 경험이 되게 합니다.

열번의 성모송

33. 묵주기도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인 성모송은 또한 묵주기도를 탁월한 마리아의 기도가 되게 합니다. 그러나 성모송을 바르게 이해할 때에만 우리는 묵주기도의 마리아

아 성격이 그리스도특성에 배치되지 않으며 실제로 이를 들어 높이고 고양시킨다는것을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성모송의 전반부는 가브리엘천사와 엘리사벳성녀가 성모님께 드린 말씀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자렛의 동정녀안에서 이루어진 신비를 흠송하며 관상하는 것입니다. 이부분은, 말하자면 하늘과 땅의 경탄을 드러내며, 하느님께서 당신의 '작품', 곧 동정 성모마리아의 태중에서 이루어진 성자의 강생을 바라보시면서 느끼시는 경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창세 1,31) 기뻐하신것을 생각한다면, 여기서도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새벽에 당신 손으로 만드신 작품을 보시고 품으셨을 그러한 희열"이 되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묵주기도에서 성모송을 반복하며 하느님의 경탄에 동참합니다. 우리는 기쁨과 놀라움속에서 역사의 가장 위대한 기적을 깨닫습니다. 여기에서, 성모님의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이제부터는 온 백성이 나를 복되다 하리라" (루카 1,48). 성모송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이를테면, 성모송의 축은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예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때때로 급하게 성모송을 외우다보면 이를 놓치기 쉬우며, 성모송과 함께 관상하는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한 관계도 잊기 쉽습니다. 그러나 묵주기도를 의미있고 효과있게 바치는 표시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신비에 대한 강조입니다. 바오로6세께서는 교황권고 「마리아공경」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상하고 있는 신비의 내용을 덧붙여 그이름을 강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죄인들의 피난처, 슬퍼하는 이들의 위로자이신 성모님

조하는 일부지역의 관습에 주목하셨습니다. 이는 특히 공적으로 묵주기도를 바칠 때에는 더욱 칭찬할만한 관습입니다. 이러한 관습은 구세주의 삶의 여러 순간들을 향하고 있는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힘차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신앙고백인 동시에, 성모송의 반복에 내재된 그리스도의 신비에 동화되는 과정을 촉진함으로써 묵상을 받쳐주는 도구입니다. 마치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시키신 것처럼, 사람에게 주신 이름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인(사도 4,12)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성모님의 이름과 함께 되풀이하여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동화의 여정이 됩니다. 성모송의 후반부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죽음의 순간을 성모님의 전구에 맡기며 드리는 간절한 호소는 성모님께서 그리스도와 맺으시는 독특한 관계, 곧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게 하는 그 관계에서 힘을 얻습니다.

영광송

34.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드리는 영광송은 모든 그리스도인 관상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성령 안에서 성부께 이끌어 주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끝까지 가는 동안 모든 찬미와 경배와 감사를 받으셔야 할 성삼위의 신비를 여러번 만나게 됩니다. 묵주기도에서 관상의 정점인 영광송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적으로 묵주기도를 바칠 때에는 영광송을 노래로 불러 모든 그리스도인 기도의 고유한 구조에 다가서는 것이 매우 바람직합니다. 성모송에서 성모송으로 이어가며 그리스도와 성모님께 대한 사랑으로 각 신비를 생생하게 깊이 묵상하는 그만큼 각단에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은 형식적인 마무리가 아니라, 마치 우리 마음을 하늘 낙원으로 들어올리고 어느모로 다볼산의 경험을 다시 체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미래 관상의 예고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루카 9,33)

짧은 마침 기도

35. 오늘날의 묵주기도에서 영광송 다음에 짧은 마침기도가 이어집니다. 이 마침기도는 지역관습에 따라 다양합니다. 그러한 기도의 가치를 조금도 해치지 않으면서, 신

비의 묵상이고 유한 열매를 맺도록 그 신비를 기도로 마무리 한다면, 신비의 관상이 더더욱 풍요로워질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깁니다. 이렇게하여 묵주기도가 그리스도인 생활과 갖는 관계를 더 잘 드러낼수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전례기도 하나가 우리에게 묵주기도의 신비들을 묵상함으로써 "그안에 담긴 것을 본받고 약속된 것을 얻을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러한 마무리기도는 당연히 다양성을 지닐수 있으며, 이미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묵주기도는 다양한 영성전통과 여러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더 잘 적응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기도형태를 사목적으로 충분히 식별하고, 가능하면 묵주기도에 특별히 봉헌된 장소와 순례지등에서 실험적으로 사용한 다음에, 널리 사용 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하여 하느님백성은 참된 영적부요의 풍요로움에서 이득을 얻고 개인적 관상의 자양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묵주

36. 전통적으로 묵주기도에 쓰이는 도구는 묵주입니다. 지극히 피상적인 차원에서만 보면, 묵주는 흔히 반복되는 성모송을 세기 위한 단순한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묵주는 관상의 실체를 더욱 충만하게 하는 상징성을 보여 주는데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먼저 주목하여야 할 것은, 묵주알들이 십자고상에 모아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고상에서 기도의 순환이 시작되고 끝납니다. 신앙인들의 삶과 기도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것은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되며, 그분을 지향합니다. 모든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안에서 성부께 이릅니다. 기도의 진행을 표시하며 세는 도구인 묵주는 그리스도인 관상과 완덕의 끝없는 길을 가리킵니다. 바르톨로몽고복자는 묵주를 하느님과 우리를 묶어주는 '사슬'로 여기기도 하였습니다. 사슬, 참으로 아름다운 사슬입니다. 언제나 아버지 하느님과 우리를 묶어주는 결합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종"(루카 1,38)이신 성모님과, 또 무엇보다도 하느님과 같은 분이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종"(필립2,7)이 되신 그리스도와 일치될 이루도록 하는 "효성"의 사슬입니다. 묵주의 상징을 우리의 상호관계, 그리스도안에서 우리가 모두 하나되게 하는 친교와 우애의 유대로 펼쳐가는 것이 좋습니다.

평화의 기도인 묵주기도는 또한 언제나 가정의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시작과 끝맺음

37. 현재, 각 지역교회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묵주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떤지역에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부족함을 겸손하게 인정하도록 일깨우는 의미에서, 시편 69[70]의 첫구절 "하느님 저를 구하소서. 주님, 어서오사 저를 도우소서."로 묵주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있습니다. 다른지역에서는 신앙고백을 관상여정을 시작하는 토대로 삼을 수 있도록 사도신경을 바치면서 묵주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러한 관습들과, 이와 유사한 관습들이 관상을 위한 마음의 준비를 시킨다면 모두 똑같이 정당한 것입니다. 또한 묵주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시야를 넓혀 교회의 모든 요구를 끌어안을 수 있도록, 교황의 지향을 위한 기도로 끝맺습니다. 교회가,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묵주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대사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진 것은, 바로 묵주기도의 이러한 교회적 차원을 들어 높이기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끝맺을 때에 묵주기도는 참으로 어머니이시고 스승이시며 인도자이신 성모님께서 당신의 힘찬 전구로 신자들을 뒷받쳐주시는 영적인 여정이 됩니다. 묵주기도를 드리며 성모님의 모성을 깊이 체험한 사람이 성모찬송가나 성모호칭기도와 같은 뛰어난 기도문으로 동정성모님을 찬미할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어찌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비와 성모님의 신비를 생생하게 체험하는 내적순례의 마침입니다.

요일 배분

38. 묵주기도는 날마다 전체를 다 바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하여 묵주기도는 수많은 관상자들의 나날을 기도로 채워주고, 시간이 많은 병자나 노인들에게 맡겨집니다. 그러나 분명히 많은 사람들은 한주간의 어떤 순서에 따라 하루에 묵주기도의 일부 밖에 바칠 수 없으며 이는 빛의 신비가 새롭게 포함된다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이러한 요일배분은, 전례가 전례주년의 다양한 시기를 여러색으로 채색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요일마다 영적인 '색깔'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공통적인 관습에서는,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환희의 신비'를,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고통의 신비'를, 수요일과 토

요일과 주일에는 '영광의 신비'를 바칩니다. 그렇다면 '빛의 신비'는 어디에 들어가게 될까요? '영광의 신비'를 토요일과 주일에 모두 바치고 있으며, 토요일은 주요 전통에 따라 마리아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성모님의 현존이 특별히 드러나는 토요일로 '환희의 신비'에 대한 두번째 묵상을 옮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목요일에 '빛의 신비'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개인이나 공동체기도의 합법적인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기도에서는 영적 사목적 요구는 물론, 적절한 적응이 요구될 수 있는 특별한 전례거행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묵주기도를 언제나 관상의 길로 여기며 살아가야한다는 것입니다. 묵주기도를 통하여, 전례에서 그러하듯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인 주일을 중심으로한 그리스도교의 한주간은 그리스도생애의 신비들을 거쳐가는 하나의 과정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제자들의 삶 안에서 시간과 역사의 주님으로 드러나십니다.

"우리를 하느님께 묶어주는 아름다운 사슬인 복되신 성모님의 묵주기도" (결론)

39.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이러한 전통적인 기도의 풍요로움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묵주기도는 대중신심의 단순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더욱 깊은 관상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도록 신학적 깊이도 갖추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려운일들을 묵주기도, 특히 공동으로 바치는 묵주기도와 그 끊임없는 실천에 의탁하면서 이기도의 특별한 효과를 늘 믿어왔습니다. 때때로 그리스도교 자체가 위기에 놓인 것처럼 보일때에도, 묵주기도의 힘에 의지하여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어왔으며, 묵주기도의 성모님께서 구원의 중개자로 찬미받으셨습니다. 오늘 저는, 처음에 말씀 드렸듯이, 세계평화와 모든 가정의 문제를 묵주기도의 힘에 기꺼이 의탁하고자 합니다.

평화

40. 이 새천년기를 시작하면서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도전들은, 갈등상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묵주기도는 지옥의 공격을 물리치는 구원의 보루이며

모든 난파선이 찾는 안전한 항구입니다.

하늘 높은 곳에서 오는 개입만이 더욱 밝은 미래를 희망하게 한다고 믿게합니다. 묵주기도는 그 본질상 평화를 위한 기도입니다. 평화의 임금님이시며 "우리의 평화"(에페 2,14) 이신 그리스도를 관상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를 이해하는 사람은 누구나 평화의 비결을 알게되고 이를 자기 삶의 목표로 삼습니다. 이는 또한 묵주기도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또한 묵주기도는 성모송을 조용히 반복하면서 묵상하는 특징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며, 부활하신 주님의 특별한 선물인 참된 평화(요한 14,27; 20,21 참조)를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받아들이고 체험하며 주변에 전파하게 합니다. 묵주기도는 또한 그 기도가 맺는 사랑의 열매 덕분에 평화의 기도입니다. 관상기도인 묵주기도를 올바르게 바치면,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서 그분을 만날 수 있고 형제자매들에게서, 특히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찾게됩니다. 환희의 신비에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아기의 신비를 묵상하면서, 어찌 생명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수호하며 증진하려는 열망을 느끼지 않을 수 있으며, 온 세상의 고통받는 어린이들의 집을 떠맡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빛의 신비에서 계시자이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어찌 일상 생활에서 그분의 '참 행복'을 증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를 관상하면서, 어찌 고통에 짓눌리고 절망에 빠진 모든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스스로 '키레네의 시몬' 처럼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하늘의 모후이신 성모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어찌 이세상을 더욱 아름답고 더욱 정의롭고 하느님의 계획에 더욱 맞닿은 곳으로 만들려는 열망을 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께 마음을 모아 묵주기도를 바치는 동안 우리는 세계평화의 일꾼이됩니다. 묵주기도는 끊임없이 되풀이하며 공동으로 바치는 그 특성으로, "언제나 기도하고 용기를 잃지마라."(루카 18,1) 하신 예수님의 권고에 따라 우리가 오늘날에도 평화를 위한 힘든 '싸움'에서 이길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줍니다.

묵주기도는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에서 도망치게 하기보다는, 그 문제들을 책임감과 헌신적인 도량으로 직시하게



하며, 하느님께서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문제들에 맞설 수 있는 힘을 주고 모든 시대에 "모든것을 하나로 묶어 완전하게 하는 사랑"(골로 3,14)을 증언할 수 있는 굳은 의지를 줍니다.

가정 : 부모들

41. 평화의 기도인 묵주기도는 또한 언제나 가정의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한때 그리스도인 가정들은 특별히 이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며 가족들의 화합을 도모하였습니다. 이 귀중한 유산을 잃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묵주기도를 바치며, 가정을 위한 가정기도의 실천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교황교서 「새천년기」에서 평신도들도 본당공동체와 다양한 그리스도인 단체의 일상 생활에서 성무일도를 바치도록 장려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묵주기도에 대해서도 그렇게 권고하려고 합니다. 이 두가지의 그리스도교 관상방법은 서로 다르지만 상호보완적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가정사목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분에게 묵주기도를 진심으로 권장하도록 요청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정은 하나가 됩니다.

거룩한 묵주기도는 오랜전통에서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기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족들 각자 한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서로 돌아보고 대화하며 함께 느끼고 서로 용서해주며 하느님의 성령으로 새로워진 사랑의 계약에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발전된 나라들에서 이시대의 가정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의사소통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에서 비롯됩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이기가 어려워지고, 어찌다 한자리에 모여도 TV만 보고 맙니다. 가정에서 묵주기도를 다시 바치기 시작하면, 구원을 가져다 주는 여러모습들, 곧 구세주와 성모님의 모습으로 일상의 삶을 채울 수 있습니다. 묵주기도를 함께 바치는 가정은 어느모로 나자렛 성가정의 모습을 재현합니다. 예수님을 한가운데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가족들의 형편과 계획을 그분의 보살핌에 맡겨드리며, 그분에게서 희망을 길어올리고 앞으로 남은 여정을 살아 갈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스도께 마음을 모아 묵주기도를 바치는 동안 우리는 세계평화의 일꾼이됩니다.

그리고 자녀들

42. 자녀들의 성장과정을 이 묵주기도에 의탁하는 것도 즐겁고 풍요로운 일입니다. 묵주기도 또한 잉태에서부터 죽음 그리고 부활과 영광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생애를 따르는 여정이 아닙니까? 오늘날 부모들은 자녀들의 삶을 따라가기가 점점 더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기술발전과 대중매체, 세계화를 특징으로 하는 사회에서 모든것이 급속히 돌아가고, 세대간의 문화격차가 날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때보다 더 다양한 메시지들과 예측할 수 없는 경험들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삶에 빠르게 침투하며, 부모들은 자녀들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을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부모들은 자녀들이 마약의 유혹, 무절제한 향락주의의 손짓, 폭력의 유혹, 온갖 형태의 의미 상실과 절망으로 잘못될 때에 몹시 낙담하기도 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더 나아가 자녀들과 함께 묵주기도를 바치며 어린시절부터 날마다 가정 '기도시간'을 갖도록 가르치는 것은, 물론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절대 과소평가할 수 없는 영적인 도움이 됩니다.

묵주기도가 오늘날의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지 않는다고 여겨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는 아마도 묵주기도를 바치는 방법이 빈약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묵주기도의 기본틀을 해치지 않으면서, —가정안에서든 단체에서든— 청소년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그들이 묵주기도를 바치지 않을 까닭이 없습니다. 왜 시도해보면 안됩니까? 하느님의 도우심을 받아, 세계청년대회에서처럼 긍정적이고 열정적이며 창조적인 청소년 사목방법을 활용한다면 매우 훌륭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묵주기도를 지혜롭게 제시해주면 저는 청소년들이 이를 자기네 기도로 삼고 젊은이다운 열정으로 열심히 바쳐 다시한번 어른들을 놀라게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묵주기도는 다시 찾아야 할 보화

43.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토록 쉽고도 풍요로운 이 묵주기도는 참으로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다시 찾아야 할 드높은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 그렇게합시다. 교황교서 「새천년기」에서 이미 밝힌 방향을 확인하는 도

구로서 묵주기도를 다시 찾읍시다. 많은 개별교회들은 이 교서에 따라 사목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이를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형제주교들과 사제들과 부제들에게, 그리고 여러 직무를 맡고 있는 사목종사자 여러분에게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각자가 묵주기도의 아름다움을 몸소 체험하고 묵주기도의 열렬한 후원자가 되십시오. 또한 신학자 여러분에게도 기대를 겁니다. 하느님 말씀에 뿌리를 박고 그리스도교 백성의 산체험에 관심을 기울이는 치밀하고도 지혜로운 토론을 통하여, 신자들이 이 전통적인 기도의 성서적 토대와 영적부요, 그리고 사목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모님의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관상하도록 특별하게 부름받은 남녀봉헌 생활자들에게 많은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갖 생활 신분의 모든 형제자매들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 가정, 병자와 노인, 그리고 젊은이 여러분에게 기대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손에 다시 묵주를 드십시오. 성서에 비추어, 또 거룩한 전례와 부합되고 일상 생활에 어울리는 묵주기도를 다시 찾으십시오. 아무쪼록 저의 이러한 호소를 흘려듣지 마십시오!

저의 교황직 25년으로 들어서며, 저는 그러한 마음으로 묵주기도의 사도인 바르톨로롱고 복자가 성모님께 지어 바친 빛나는 순례성당의 성모상앞에 엎드려 이 교서를 동정성모님의 지혜로우신 손길에 맡겨드립니다. 저는 바르톨로롱고 복자의 저 유명한 '거룩한 묵주의 모후이신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의 감동적인 말씀을 기꺼이 제 말씀으로 삼아 이 교서를 마치고자합니다. "복되신 성모님의 묵주는 저희를 하느님께 묶어주는 아름다운 사슬이며, 저희를 천사들과 결합시켜주는 사랑의 끈입니다. 묵주기도는 지옥의 공격을 물리치는 구원의 보루이며 모든 난파선이 찾는 안전한 항구입니다. 저희는 묵주기도를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묵주는 저희에게 위안이 될 것입니다. 삶을 마치며 묵주에다 마지막 입맞춤을 할 것입니다. 묵주의 모후이신 성모님, 저희는 마지막 순간까지 감미로우신 성모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죄인들의 피난처, 슬퍼하는 이들의 위로자이신 성모님, 오늘 또 영원토록 하늘땅 어디에서나 찬미받으소서."

아멘. **M**

모든 기억과 상처들을 깨끗하게 치유해주소서.

슬라브코 바르바리치 신부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나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먼저 너희 자신을 준비하라고 너희를 부른다. 특별히 너희 마음의 준비를 위하여 회개하고 먼저 거룩한 고해 성사를 보아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거룩하게 살기로 결심하여라.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기로 결심하기 바란다. 어린 자녀들아, 나는 너희 모두를 구원의 길로 부르며 너희에게 천국에 이르는 길을 보여 주기를 열망한다. 어린 자녀들아, 그러니 나의 사람이 되어, 나와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 가고자 결심하여라. 어린 자녀들아, 기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기도, 기도, 기도하여라.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 1998년 11월 25일 성모님의 메시지 -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나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먼저 너희 자신을 준비하라고 너희를 부른다.

성모님께서서는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 대축일 준비는 우리 자신의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며 마음을 준비하면 하느님의 말씀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천사가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하며 하느님의 부르

심을 전하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응답하심으로 성모님께서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머무시는 첫 번째 감실이 되셨 습니다. 성모님의 "예"라는 대답은 이미 특별한 방법으로 성모님을 선택하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참된 사랑이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은총 속에 머물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너희 마음의 준비를 위하여 회개하고 먼저 거룩한 고해 성사를 보아라.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성사를 준비하며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화해 성사를 통하여 사랑이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대한 신뢰로, 모든 죄와 두려움을 고백할 때 용서받는다든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죄는 우리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를 분리시키고 스스로를 고립시켜 불안과 두려움속에 가두어 둡니다. 마치 알콜 중독자가 계속 술을 마심으로써 분별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올바른 판단

성모님의 손을 잡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을 할 수 없게 되면 자신과 가족, 사회에서 문제를 만들고 스스로 자신을 세상과 분리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예로 이웃에게 나쁜일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스스로를 이웃과 자신을 분리시키며 고립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죄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느님의 보호를 청해야만 합니다. 고백 성사를 준비할 때 하느님과 자신의 화해, 이웃과의 관계를 되돌아보며 진정으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용서와 화해가 없는 사랑은 성장할 수 없으며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스로를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주 좋은 결심을 하지만 나약함과 죄로 인하여 좋은 결심에 충실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고백성사는 내적 치유의 성사이기도 합니다. 성모님께서 고백성사가 변화의 첫 번째가 되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상기하면서 진정한 화해의 성사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의 손길이 함께 하도록 고백신부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성스러운 마음으로 준비하는 고백성사에는 당연히 진정한 화해와 치유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변화의 삶으로 첫 발을 내딛을 수 있습니다. 진실한 참회와 화해, 용서로 시작되는 거룩함은 믿음, 사랑, 평화, 신뢰, 선하고 자비스러운 마음안에서의 성숙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거룩하게 살기로 결심하여라.

세례성사를 받을 때 하느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룩함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세례때에 받은 거룩함의 씨앗은 고백성사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자라게 해줍니다. 모든것을 알고 계시는 성모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기로 결심하기 바란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내일로 미루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익숙한 습관입니다. 또한 계획하였던 결심들이 유혹으로 실패할 때 자주 실망하여 거룩함의 시작을 내일로 미루기도 합니다. 그러한 습관들은 우리 안에 죄와 악습들이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해주어서 새로운 삶에 대한 변화를 어렵게 합니다. 성모님께서서는 메시지들에서 과거의 죄들을 하느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용서하심에 단순하게 의탁하고 하느님의 사랑안에서 거룩하게 살으라고 말씀하십

니다. 우리에게 있는 진실은 단 한가지 바로 오늘 이고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엘비라 수녀님의 공동체 (체나콜로)에 살고 있는 한 청년은 자신이 체험한 유혹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마약을 거부하였지만 마약은 우리들을 거부하지 않았습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결심할 때 먼저 지난 기억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있는 영원한 삶에는 어제와 같은 유혹들이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모님께서서 우리의 영원한 삶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나는 너희 모두를 구원의 길로 부르며, 너희에게 천국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기를 열망한다.

거룩함을 결심한 사람은 누구나 구원의 길을 선택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빛이시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희망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천국에 이르는 길이요, 빛입니다. 그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다는 것은 오직 선과 사랑, 믿음만이 존재하는 천국과 구원의 삶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갈 때 사탄과 모든 죄악의 유혹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늘 성모님의 손을 잡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삶의 길에서 우리가 수 많은 어려움과 나약함을 경험하게 되더라도 오직 하느님께 의탁하는 믿음을 가진다면 모든 것이 사랑과 선으로 일치되기 때문입니다. 10월 메시지에서 우리를 당신의 티없으신 성심으로 초대하신 성모님께서서는 이번 달 메시지에서 더욱 확고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자녀들아, 그러니 나의 사람이 되어,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서는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당신께 의탁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성모님께 봉헌하고 거룩함의 길을 가고자 할 때 모든 괴로움들도 선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들의 죄와 나약함을 알고 계시는 성모님께서서 봉헌을 통하여 우리를 떠 맡으셨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 가고자 결심하여라.

성모님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호자이신 성모

우리는 꾸준한 기도안에서 사랑, 믿음, 신뢰, 평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모님과 함께 "주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부족하고 미약함 중에서도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대림절을 시작하며 "주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하느님께 우리 삶의 열쇠를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성모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지혜안에서 많은 은총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음은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더 강하게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린 자녀들아, 기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이 말씀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진지한 기도로 부르시는 성모님의 말씀을 무심하게 듣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를 받아들이며."라고 하시는 어머니의 말씀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자신의 구원이며 그 길에 많은 사람들이 동행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꾸준한 기도안에서 사랑, 믿음, 신뢰, 평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치유해 주시는 거룩하신 하느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주시는 자비와 구원의 빛으로 우리는 어둠에서 자유를, 죽음에서 구원을 받게 해줍니다. 성모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기도, 기도하여라.

대림절이 시작하는 시기에 성모님께서 자주 우리를 기도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메시지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반복하셨는지 헤아려 본다면 매우 놀랄 것입니다. 특별히 대림 시기에 우리를 기도로 부르시는 성모님의 말씀이 모든이의 마음과 가정, 교회와 세상에 진지하게 받아들여져 구원을 향한 열정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향이 이루어지도록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하느님 아버지! 우리 구원을 위하여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대림시기를 맞이하여 저희들은 성모님과 함께 당신께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당신 아



들의 오심을 위하여 성모님의 마음을 준비시키셨듯이 저희도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다해 맞이 할 수 있는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주소서. 성모님처럼 온전히 당신과 당신 아들에게 마음을 열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이 당신 아드님이 머무시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소서. 또한 거룩한 고백 성사의 은총을 청하오니 화해의 성사를 통하여 당신 자비와 사랑과의 만남이 되게 하소서. 또한 우리의 자만심과 두려움과 불신으로 지은 죄들을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어 모든 기억과 상처들을 깨끗하게 치유해주소서. 고백성사를 하는 모든 사제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사랑과 평화를 가득 채워주시어 자비로우신 당신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당신께 의탁하오니 오늘 성모님과 함께 당신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서 당신을 만나고 거룩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변화와 거룩한 삶의 결심을 내일로 미루지 않게 하소서. 구원의 길을 방해하고 구속하는 모든 악습에서 저희가 해방될 수 있도록 기도의 힘을 채워주소서.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이 성모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성모님,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의 시기인 이 대림절에 성모님의 삶을 본받아 저희들도 예수님께 대한 신뢰와 굳은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 해주소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멘. **M**

(Medjugorje St James Church Information Center에서)



모두가 내게 봉헌하기 바란다.

287. 1984. 3. 2

하느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구원' 계획을 이루심에 있어서 나의 "예!"를 받아들여주시려고 대천사 가브리엘을 파견하셨으니. 그가 내게 주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그 형언할 수 없도록 복된 순간을 묵상해 보아라. '말씀'이 내 동정의 태중에서 사람이 되신 그 위대한 신비를 묵상 하느라면, 내가 '티없는 내 성심'에 너희를 봉헌하라고 하는 까닭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다. 이 봉헌은 1917년 파티마의 발현에서 내가 몸소 드러낸 원의이다. 내가 말긴 이 사명을 완수하려고 아직 지상에 있는 내 딸 루치아 수녀에게 그 당시 여러번 당부했던 것이다. 그리고 최근 수 년 동안에도 나의 '사제운동'에 말긴 메시지를 통해 나는 끊임 없이 봉헌을 요구해 왔다. 오늘은 모든 이에게 티없는 내 성심에 봉헌하라고 다시금 당부한다. 우선,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들 중에서도 받아들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게 이를 요청하니, 그는 이 축일을 맞아 전 세계 주교들에게 그들 역시 자신과 일치하여 그렇게 하도록 권고하는 서한을 보낸 후, 성대하게 봉헌식을 거행하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모든 주교가 이 권고를 다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내가 여러번 청한대로 교황이 러시아를 공공연히 봉헌하기에는 그 특수한 사정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너희에

게 벌써 말했듯이, 러시아의 봉헌은 머지 않아 유혈사태가 일어나고 있을 때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내' 교황이 세계와 모든 나라를 티없는 내 성심에 맡기고자 한 이 용감한 행동을 축복하면서 사랑과 감사의 정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약속한다. 바로 이 봉헌때문에 전환기를 대폭 단축하고 막중한 환난의 무게를 덜어 줄 수 있도록 내가 중재하겠다는 것을. 하지만 나는 모든 주교와 사제들, 모든 수도자와 신자들도 이 봉헌을 하도록 요청한다. 지금은 전교회가 반드시 티없는 내 성심의 안전한 피난처에 모여들어야 할 때이다. 너희에게 봉헌을 요구하는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어떤 물건이 봉헌되어 축성을 받으면 오직 성스러운 용도로만 쓰일 뿐 그렇지 않은 사용은 금지된다. 그것이 하느님을 예배하는 데만 쓰이도록 정해진 물건의 특성이다. 사람도 완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는 경우, 이와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 너희의 진정한 봉헌 행위는 참으로 '세례'를 방불케 하는 행위임을 알아두어라. 예수께서 제정하신 이 세례 성사로 너희는 자신을 초월하는 생명의 질서, 다시 말해서 초자연적 생명의 질서안에 위치하는 은총을 입는다. 그렇

나는 모든 주교와 사제들, 모든 수도자와 신자들도 이 봉헌을 하도록 요청한다.

게 너희는 신성에 참여하며, 하느님과 사랑의 친교를 나누게 된다. 그러면 너희의 활동도 자연적 가치를 초월하는 새로운 가치를 지닌다. 정녕 신적 가치를 지닌 활동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례를 받은 후의 너희는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 일체의 영광을 완전히 찬미할 사람들로 정해지고, 성부의 사랑 안에서 성자를 본받으며 성령과의 충만한 친교 안에 살도록 축성된다. 봉헌 행위의 특징은 그것의 전체성이다. 너희가 일단 자기를 봉헌하고 나면, 그것은 전적이고 영구적인 봉헌이 되는 것이다. 너희더러 티없는 내 성심에 봉헌하라고 요구하는 것 역시, 내가 너희를 하느님의 뜻대로 쓸 수 있도록 너희 자신을 온전히, 즉 전적이고 항구적인 봉헌으로 내게 맡겨야 한다는 점을 너희가 알아듣게 하기 위함이다. 내게 모든 것을 봉헌하면서 너희 자신을 완전히 맡겨야 한다는 말이니, 어떤 것은 내게 주고 다른 것은 자기에게 남겨두는 식이어서는 안된다.

너희는 참으로 온전히 내 것이 되어야 한다. 더욱이, 어떤 날은 "예" 하고 다른 날은 "아니오" 한다든가, 너희 마음대로 일정기간 동안만 하는 봉헌이어서도 안된다. 반드시 영구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와같이 너희 천상 엄마인 내게 너희가 온전히, 또 항구적으로 속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티없는 내 성심에 봉헌하라고 당부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방법으로 봉헌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겠느냐? 교회가 오늘 기념하는 형언할 수 없는 신비를 묵상해보면, 내가 너희에게 요구한 봉헌을 어떻게 삶에 옮겨야 할지 깨닫게 될 것이다.

성부의 '말씀'께서 사랑으로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게 맡기셨다. 나의 "예!"를 받아들여시고 내 동정의 태중에 내려 오셨다. 그분은 당신 신성을 지니신 채 내게 당신을 맡기셨다.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제2위격이신 영원한 '말씀'이 '강생'하시어, 성령께서 기적적으로 마련하신 작은 거처인 내 동정의 태중에 숨어계셨다. 그분은 사람의 모든 아들들이 엄마에게 맡겨지는 심오한 방식으로 엄마에게서 일체를 기대하심으로써 당신 인성을 내게 맡기셨다. 다시 말해서 성장에 필요한 피와 살, 양분, 호흡, 사랑을 엄마의 태중에서 날마다 기다리셨고, 이후 - 탄생하신 후 - 예는 어머니 곁에서 해마다 늘 그 모든 것을 기대하셨다. 그래서 나는 '강생의 어머니'임과 동시에 '구속의 어머니'이 기도 하다. 이 신묘한 강생이 구속의 시작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너희가 알다시피, 나는 내 아들 예수님과 긴밀히 결합되어 있었고, 그분의 구원사업에 협력해 왔다. 그분의

유년기와 청년기 33년에 걸친 나자렛에서의 숨은 생활에서부터 공생활기, 그리고 그 처참한 '수난'과 아울러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에 이르기까지 줄곧 그러했으며, 십자가 밑에서는 그분을 성부께 바쳐드리고 그분과 함께 고통을 겪으면서 사랑과 비통에 젖은 마지막 말씀을 받았으니, 이 말씀으로 그분은 온 인류에게 나를 참 '어머니'로 주신 것이다.

예수님의 '성직자'들이기에 모든 점에서 그분을 본받을 소명을 받은,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들아, 예수께서 이 천상 엄마에게 온전히 의탁하셨다는 점에서도 너희는 그분을 본받아라. 봉헌으로 너희 자신을 내게 바치라고 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빈틈없이 세심한 어머니가 될 수 있을 터이다. 하느님의 계획대로 너희를 기르면서 너희가 받은 소명인 '사제직'이라는 위대한 선물을 삶 안에 이룩하게 하는데 관심을 쏟는 어머니 말이다. 그리하여 나날이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도록 내가 너희를 이끌 것이다. 너희에게는 예수님이 유일한 모범이요, 가장 큰 사랑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렇게 그분의 진정한 도구, 그분 '구원' 사업의 충실한 협력자가 되어라. 이는 오늘날 너무나 병들어 있으며 하느님과 교회를 몹시 멀리하고 인류 전체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우신 '사랑'으로 이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리스도의 '사제'이며 내 사랑하는 아들인 너희들이 예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의 승리를 위해 그 도구가 되라는 부름을 받은 것이다. 이는 오늘날의 내 교회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교회가 본래의 광채를 회복하여 다시 거룩한 교회가 되려면 그 자녀들의 불충실과 배교 때문에 입은 상처를 치유받아야 하니 말이다.

내 '사제'들아, 너희를 통해 이 천상 엄마가 교회를 치유해주고 싶구나. 내가 너희 마음 안에서 일할 수 있게 해준다면, 즉 엄마의 자비로운 활동에 너희가 온순하고 단순하게 자신을 맡겨 준다면, 곧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비탄에 잠긴 채 애원하다시피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 모두가 티없는 내 성심에 봉헌해 다오! **M**

(위의 내용은 다락방 기도회 창설자이신 스테파노 고펀 신부님에게 1973년부터 1997년까지 성모님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참고-가톨릭 출판사,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하는 성체조배의 은총

천주교 신자들은 미사를 봉헌하는 사제가 제병을 들어 올리고 "빵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사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 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하고 축성할 때 성 변화의 기적을 굳게 믿는다. 사제가 "이는 내 몸이다."하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 성변화의 기적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피흘림 없는 희생제사로 바치는 빵과 술은 사제의 손을 통하여 예수님의 몸과 피 그리고 영혼과 신성으로 바뀐다. 그것은 빵과 술의 형상속에 계시는 예수님의 참된 현존하심이며 성체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기적의 현장인 것이다. 성체 현시는 사제가 미사를 통하여 축성된 성체를 성광안에 모시는 것이다. (성광-monstrance-의 어원은 '보여주다' '볼 수 있게 드러내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monstrare에서 나왔다). 성광은 외양을 정교하게 장식한 후 그 안에 축성된 성체를 모시거나 성광을 넣어두는 감실, 성당 제대, 혹은 성체 조배를 위한 소성당에 비치한다. 우리는 성광안에 현시된 주님의 현존앞에서 일주일에 한시간이나 그 이상 성체조배를 하게 된다. 성체 조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지속적인 성체 조배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성체 조배중에는 좋아하는 기도문이나 성서를 읽을 수 있으며 믿음 소망

사랑, 감사와 다른이들의 죄를 보속하기 위한 관상과 묵주 기도를 드릴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체험하는데 적합한 도움이 되는 것은 어떤 종류의 신심 기도라도 바칠 수 있다.

성체안의 예수님과 한시간을 보내기를 권장하는 교회의 가르침에 따른 12가지 이유

1. 당신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교회와 세상은 성체조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Dominicae Cena)

2. 성체조배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초대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사랑의 성사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Dominicae Canae)

3. 성체는 우리 삶의 중심이기에 예수님은 당신에게 기대를 거신다. "교회의 모든 일원은 성체성사가 우리 삶과 우리 영혼의 참된 중심이 되도록 깨어서 그것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모든 드러나는 경배가 그분의 사랑을 사랑으로 되돌려 줄 수 있고 참으로 우리 영혼의 삶이 되게 해야합니다."

4. 당신이 한시간동안 성체안의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세상에 있는 악이 저지르는 문제를 보수하고 지상에 평화를 가져오게 된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의 거대한 악을 없애기 위한 보속을 하는 준비에 아낌없이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성체 조배를 하십시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Dominicai Cenae*)

5. 당신은 예수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은 밤낮으로 성체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세상 모든 것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로 인해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은 베일 안에 당신의 신원을 감추신 채로 공동체의 마음 안에 영적 구심점으로서 우리 성당들 안에 존재하시며, 보편된 교회와 모든 인류안에 거하십니다. 또한 그분은 교회의 보이지 않는 심장으로 존재하시고 세상의 구세주로 모든 사람의 마음안에 자리하고 계십니다." (교황 바오로 6세, *Mysterium Fidei*)

6. 예수님은 당신이 주일미사에 참여하는 것 이상을하기를 원하신다. "미사때 공동으로 주님을 흠송하는 일은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성체 조배안에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섬기는 것과 함께 가야합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Redeemer of Man*)

7.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순간마다 당신은 영적으로 성장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수적으로 헌신해야 할 것은 끝없이 성체적인 삶안에서 살아가면서 성체 신심의 열정을 발전시키고 보전해야하는 것과 거룩하신 성체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해야하는 것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인류의 구속자")

8. 지상에서 보낼 수 있는 최상의 시간은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분인 성체안의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성체안의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은 지상에서 그보다 더한 위로가 있을 수 없고 거룩함의 여정에서 진보하는데 그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황 바오로 6세, *Mysterium Fidei*)

9. 태양앞에서 있을 때, 쏟아지는 그 햇살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성체를 통하여 당신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앞에 우리가 다가갈 때 그분이 쏟아부어 주시는 평화와 사랑 그리고 은총을 받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6세, *Mysterium Fidei*)

10. 만약 예수님께서 교회안에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현존하신다면 모두가 그분께 달려가서 인사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빵의 형상안에서 거룩하신 성체의 모습으로 자신을 감추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가 겸손안에서 그분께 다가갈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복된 성체성사는 모든 성당의 살아있는 심장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있는 강생하신 말씀이신 복된 성체를 조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드려야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황 바오로 6세, *Credo of the People of God*)

11. 변화시키시는 은총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그분의 성심으로 바꾸어주신다. "그분께서는 가까이 닥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처럼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도록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추구하신 그분의 표양을 따르도록 그분 자신의 삶을 모범으로 제시하십니다." (교황 바오로 6세 *Mysterium Fidei*)

12. 만약 교황이 당신을 바티칸으로 특별히 초대를 했다 해도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복된 성체 안에서 그분과 한시간을 보내도록 초대하는 것과는 그 영예나 품위를 비교할 수가 없다. "신성한 성체께서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비교할 수 없는 품위와 영예를 내려주십니다." (교황 바오로 6세 *Mysterium Fidei*)

복된 성체성사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과 한시간을 보내야 하는 12가지 성서적 이유

1. 그분은 실제로 현존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요한 6:35)

2. 예수님은 당신을 무한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안에 밤낮으로 거하신다.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나는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다. 그리하여 너에게 한결같이 자애를 베풀었다." (예레 31: 3)

3.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특별한 방법으로 그분을 사랑하도록 요청하셨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은 복된 성체 안에서 그분과 한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이렇게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라 말이나?" (마태 6:21; 26:40)

4. 거룩한 성체를 우러러 볼 때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요한 6:40)

5. 거룩하신 성체안에 현존하시는 그분과 보내는 매 순간은 당신안에서 그분의 신성한 삶이 더 증가하고 그분과의 관계와 우정이 더 깊어지게 해준다. "나는 너희가 삶을 얻고 더 얻어서 더 풍성해지게 해주려고 왔다," 나는 포도 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얻는다. 너희는 나없이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한다." (요한 15:5)

6. 예수님과 한시간을 보내면 그분의 신성한 평화가 우리 마음안에서 더 깊어진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마태 11:28) "내 평화는 내가 주는 선물이다" (요한 14:17)

7.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데 필요한 모든 은총을 주신다. "어좌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목자처럼 그들을 돌보시고 생명의 샘으로 그들을 이끌어주실 것이며" (묵시 7:17)

8.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무한한 감사와 조배를 받아 마땅하십니다. 그분이 가지신 것은 모두가 "살해된 어린 양은 권능과 지혜와 힘과 영예와 영광과 찬미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묵시 5:12) 이기 때문이다.

9. 우리가 사는 나라에 평화!

"내 백성이 자신을 낮추고 내 현존을 찾을 때 .. 나는 그들의 땅을 되찾아 줄 것이다."(2 고린 7:14)

10. 지상에서 예수님과 보내는 한 시간은 우리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리고 더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게 해준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루가 18:14)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거울로 보듯 어렵듯이 바라보면서 더욱더 영광스럽게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 갑니다." (2고린 3:18)



2009년 4월 9일 성 목요일날 감실에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 (사진촬영 : 충주시 교현 성당 견혁 미카엘 신부)

11. 성체안의 예수님과 함께 하는 한 시간 성체 조배를 할 때 예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온 세상을 축복하신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요한복음 20:29) "누구든지 이산더러 들러서 저 바다에 빠져라.' 하면서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마르코 복음 11:23)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묵시 21:5)

12. 성체안의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매 순간은 그분의 지극하신 성심께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고 그분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이다.

성체 조배에 대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권고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현존안에 머물라는 부름을 받았 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기적으로 거룩한 성체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방문하도록 권유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관상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인 삶의 핵심적 인 신비의 심원한 깊이를 인지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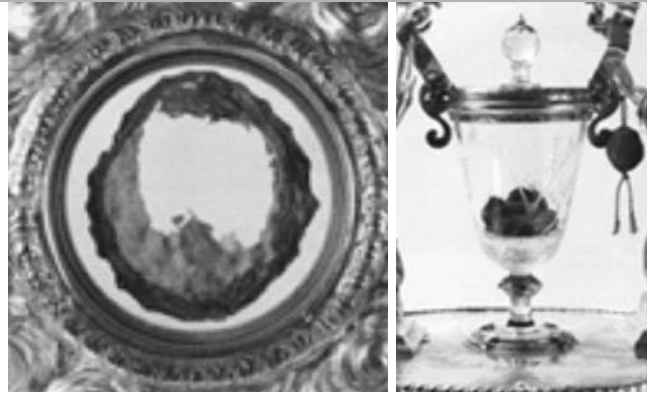
청년들에게 성체 조배를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사제들이나 수도자들 그리고 평신도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배가하여 젊은이들에게 성체 조배 신심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가르칠 것을 당부합니다. 그들이 성체 안에서 현존하시는 하느님의 신비에 대해 배우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느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청년 사무엘처럼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의 말들에 대해 배움으로써 그들과 함께 영적인 성장은 물론 인간적인 성장과정에 동행 해주시는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될 것입니다. 성체신 비는 실제로 그리스도 부활을 나타내주는 가장 뛰어난 증거이며 "선교의 최정상" (교회헌장)입니다.

(출처www.catholic-church.org에서)

란치아노의 성체 성혈 기적

8세기경 어느 날 바실리오 수도회의 한 사제가 란치아노 시에 있는 성 레곤지아노에게 봉헌된 성당에서 로마 가톨릭 전례 양식에 따라 미사를 거행하고 있었다. 그 수도사제는 성체 축성을 하면서 성체 안에 예수님께서 참으로 현존하고 계신지에 대해 불현듯 의심을 품었다. 그 순간 성찬례를 위한 제병은 살로 변했고, 포도주는 피로 변하여 응고되어 각각 다른 모양과 크기의 다섯 부분으로 나뉘어졌다. 너무나 당혹한 그 수도 사제는 처음에는 그 사실을 숨기려 하였으나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몇몇 신자들에게 밝히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신자들이 이 소식을 도시전체에 전했다. 이 기적이 일어난 후, 12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 때 변화된 성체와 성혈은 손상되지 않은 채 보존되어 있다.



1200년 동안 보관되어 있는 성체와 성혈

성체 성혈 기적에 대한 과학적 조사

1970년 오도아르도 리놀리 박사가 이 성체 기적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체기적의 성체는 참된 살이며, 성혈은 참된 피이다.
2. 성체는 심장의 근육조직으로 이뤄져있다.
3. 성체와 성혈은 사람의 것이다.
4. 성체와 성혈의 혈액형은 일치하며 AB형이다.
5. 성혈에는 일반사람에게서 발견되는 정상적인 단백질이 발견되었다.
6. 성혈에는 또한 염화물, 인,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등의 미네랄이 감소된 양으로 함유되어 있으며, 반면 칼슘은 증가된 양으로 함유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M**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이콘 그림에 대한 해석입니다.

- (1) **ΜΡΟΥ** 성화의 좌우 윗단에 있는 그리스어 머리글자 :
하느님의 어머니
- (2) 성모님의 머리 위에 그려진 별 :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별임을 뜻한다.
- (3) 오른쪽 천사 :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못을 들고 있는 가브리엘 천사
- (4) 왼쪽 천사 : 창과 쏘개 담긴 그릇과 해면을 잡아 맨 막대기를 들고 있는 미카엘 대천사
- (5) 예수님의 왼 쪽 위에 있는 그리스어 머리글자 :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
- (6) 성모님의 오른 손과 왼손 : 수난의 도구들을 보고 두려움에 달려와 품에 안기는 어린 예수님의 두 손을 받쳐 들고 있는 오른 손은 은총의 전달자임을, 예수님의 몸을 받치고 있는 왼 손은 위로자임을 표현하고 있다.
- (7) 성모님의 붉은색 옷 : 팔레스티나 처녀들이 입던 옷으로서 붉은 색은 동정성을 의미
- (8) 성모님의 감청색 망토 : 예수님 시대 팔레스티나의 어머니들이 입던 겹옷
- (9) 황금색 배경 : 천국과 영원을 상징
- (10) 예수님의 벗겨진 신발 : 신발이 벗겨질 정도로 황급히 달려와 어머니의 도움을 청하는 하느님 자녀들의 긴급한 상황을 말해준다.



이곳에 내 하느님의 어머니가 계시는구나!

저자 : 사브리나 꼬비치
옮긴이 : 남기옥 마르타



질문 : 성모님께서 매일 성경을 읽으라고 하셨는지요? 성경을 읽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까?

요조 신부 :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창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버려졌거나 감옥에 갇혀있는 것처럼 책 속의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느님 말씀의 힘은 각 사람의 생활안에서, 인간의 마음을 감실 삼아 지내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고 가르치며 축복하고 평화로 채워줍니다.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대화이지요. 성모님께서서는 발현 초기부터 매일 성경을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메시지들을 매일의 의무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제시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묵주 기도를 드리고, 두 번째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묵주 기도에 대한 메시지: 1984. 8.14, 1984. 9. 27, 1984. 10. 8, 1985. 6. 25, 1986. 6.12, 1988. 1. 25, 성경에 대한 메시지: 1984. 10. 18, 1985. 2. 14, 1991. 6.25.)

성경을 읽는 사람은 엘리사가 사무엘에게 가르쳤던 그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가서 자거라, 누군가 다시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하고 대답하여야." (1사무 3:9) 우리들의 삶도 하느님을 위한 시

간을 배려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목소리를 듣고, 저희 가족과 함께, 제 마음과 영혼이 당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크나큰 은총이며 위대한 선물이지요. 성령의 감도를 입은 말씀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열매를 맺어 줍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하고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려 말씀을 받아들이고 육화해서 말씀이 드러나도록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이 성경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며 어떤 소리나 단순한 소식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자비로운 하느님의 말씀은 창조하며 생명을 부여합니다. 사람을 향한 하느님의 언어가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을 성령을 향해 열고자하는 사람으로서, 성령께서 그 사람안에 머무시며 기도하시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와 영광, 찬미를 드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말씀을 읽는 사람의 마음과 영혼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자라서 자비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묵주 기도에 관한 사도적인 서한에서 기도를 잘하기 위한 여섯가지 충고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기도, 기도, 기도하여라!

첫 번째로 기도하기 전에 성경안에 잠기며 마음에 닿는 구절을 읽고 묵상하면서 침묵안에서 그 말씀이 우리안에서 활동하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느님께로 인도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마치 어린 꼬마아이가 TV에 폭 빠져 있는 것처럼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손에 들었을 때 우리는 성전에서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어린 아기예수님을 품에 받아 안았던 늙은 시메온처럼 경건한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루카2:25-35 참조) 성경은 우리들의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며, 그 하느님은 마음을 전하시고 호호하시며 살아계십니다.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당신 말씀이 제 안에 남아있게 하소서! 저도 성모님처럼 그 말씀들을 묵상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질문 : 성모님께서는 거룩한 미사를 우리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하셨지요...

요조 신부 : 성체는 성사이고 신앙의 신비이며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느님의 생명입니다. 성체를 통해 탄생한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한 하느님께 일치합니다. 아주 중요한 신비이지요. 성체를 영했을 때, 우리안에 계시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빵과 포도주가 주님의 살과 피로 변화되는 성변화에는 우리들의 거룩한 변모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미사를 통해 우리안에 있는 낡은 인간의 모습인 죄인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사는 통회의 예절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체 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희생에 동참합니다. 사제들의 미사 경본에는 성작에 딱 한 방울의 물을 넣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한 방울의 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대한 인간을 보여줍니다. 성 변화를 통해 이렇게

희석된 한 방울의 물은 포도주와 물이 일치하여 지극히 거룩한 피로 변화됩니다. 우리도 거룩한 미사를 봉헌하면서 예수님과 일치할 때, 자신의 무력함과 나약함, 고통, 눈물과 삶의 십자가들이 하느님의 것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신비이자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자유인이 되어서 다른이들도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고, 구원해 주어야 합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최고 자리에 미사를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제대로 실현하고 있습니까? 현대인들을 보면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거룩한 성전을 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돈만 더 많이 벌려는 각축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희생제사에 필요한 어린 양들과 비둘기들을 환전상들을 통해 사도록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에 정신이 팔려있는 상인들을 보시고 좌판을 뒤엎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요한2:16)

오늘날 주일 미사에 참석하는 현대인들의 삶에서도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주일날이 스포츠와 TV, 영화를 보거나 소풍을 가서 먹고 마시면서 폭식을 하거나 아침 늦게까지 잠을 자면서 게으름을 피우는 날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의 주일은 게으름 피우는 날, 백수가 되는 날, 소위 말하는 웰빙을 하기 위한 여러 유혹을 즐기는 날로 전략해 버렸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친교와 나눔이 있는 주일 미사를 외면하면서 엠마오 순례길에서의 그 놀라운 경험을 스스로 포기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 하실 때나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 그분은 참으로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루카 24: 13-35) 제대를 외면하는 것은 교회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성경은
우리들의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며...



것입니다. 주일 미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과의 만남이고, 모든 본당 신자들과 함께 하는 기쁨의 날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주일은 정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주일이 노는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라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일은 하느님께서 정하신 날로써 우리의 영혼과 구원을 위해 당신을 만날 수 있도록 규정하신 날입니다.

성모님의 메시지들은 성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 성화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다소의 두려움을 안겨 줍니다. 현대에 성인(聖人)이란 무슨 뜻입니까? 과연 누가 성인이 될 수 있습니까? 거룩함의 소명은 진실되고 복음적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소명입니다. 거룩함으로의 초대는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된 진실한 삶의 부르심입니다. 거룩함은 우리 노력의 결과만이 아니고 하느님의 활동이시고 선물이며 부르심에 대해 응답입니다. 당신의 모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하느님으로부터 도피하거나 아담이 했던 것처럼 그분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숨으면서 어둠을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느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 안에서 하느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허황되지도 않고 속임수도 아니며 추상적이거나 특정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선물이신 세례성사를 통해 그리스도인 생활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거룩함으로의 초대를 받습니다. 세례성사는 하느님과 인간을 일치시켜서 하느님의 은총으로 채워주고, 현존하시는 하느님의 빛과 사랑으로 감싸줍니다. 보상할 필요가 없는 무상의 선물이지요.

그리스도교적인 교육과 신앙으로 성장해 사람은 내적으로 비추어주는 양심과 영혼의 빛으로 죄가 조화와 평화를 파괴한다는 것을 알아봅니다. 또 그러한 죄들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두려움과 불안, 불행을 조장한다는 것을 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닌 자발적인 의지로

악과 죄를 버리려고 하는 사람은 거룩한 생활, 사랑과 평화를 선택한 것입니다. 화상을 입지 않기 위해 불타는 장작을 내던지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보온을 위해 불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불붙은 장작을 맨손으로 만질 수는 없습니다. 성화의 길로 초대를 받은 우리는 이런 성화의 옷을 입고 보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들이라는 고귀함이 필요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질문 : 성모님의 메시지가 현대에 있어서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조 신부 : 성모님의 메시지들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모든 세대를 위해 필요한 것들입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들을 현실적이고 단순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탱크에 저장된 물이 없다는 것은 필요하지 않아서 다 써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항상 물은 필요하고, 목마름은 늘 존재 하니까요. 복음과 같이 메시지들도 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모님의 메시지는 복음에 있는 카나의 혼인잔치 그대로입니다.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요한2:5) 성모님의 메시지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분의 위로이고 카나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가족들의 어려움에 동참하신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표현해야 할 까요.....

분명한 것은 성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 이 시대의 인류가 목말라하고 있는 사랑과 은총, 평화는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의 감도를 받았던 엘리사벳처럼 우리도 말하게 될 것입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루카 1:43) 메주고리예를 찾아오는 순례자들은 자신들의 마음과 영혼 안에서 성모님의 현존하심을 강하게 체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 내 하느님의 어머니가 계시는구나!" **M**



당신 안에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체험하십시오!

발현 목격증인 야콥 출로

저자 : 잔 코넬 (Jan Connell)

번역 : 평화의 모후 선교회



발현 목격증인 야콥의 어린 시절은 몹시 불우했다. 아버지는 그가 여덟 살 되던 해에 가족을 저버렸으며 열두 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난 후, 숙모와 삼촌과 함께 살았다. 야콥은 1998년 9월 12일 성모님께 교회와 세상의 미래에 대한 열 가지 비밀을 받은 후 성모님의 매일

발현이 끝났다. 지금은 결혼해서 세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으며 매년 성탄절에 성모님의 발현을 보고 있다. 야콥은 성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느님의 감실이 되는 마음에 대해서 말한다. 우리는 야콥과 대화를 나누면서 성모님께서 그를 예수님의 마음속으로 데려가시며 어머니처럼 보살펴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질문 : 성모님께서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마음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까?

야콥 : 예수님의 복되신 어머니는 순수한 사랑이십니다. 성모님께서서는 그 사랑을 저에게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고 계십니다.

질문 : 당신은 열 살때부터 매일 하느님 어머니의 방문을 받고 있습니다. 성모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야콥 : 성모님과 저의 관계를 묘사할 말을 찾기가 매우 힘

듭니다. 저는 어머니의 아들이면서, 하느님의 계획을 전하는 심부름꾼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저의 어머니만이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의 어머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원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어머니가 되어 주시며, 지상에서 그를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천국 본향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질문 : 성모님께서서 서유럽 사회, 특히 미국에 대해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까?

야콥 : 성모님께서서는 유고슬라비아나 다른 특정한 나라 때문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하느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 오셨고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질문 : 우리가 세상 종말이라고 하는 그 시기에 들어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야콥 : 제 역할은 예언자가 아닙니다. 저는 다만 성모님께서 온 세상을 위해 이곳 메주고리에 주시는 메시지에 대한 증인일 뿐입니다.

질문 : 성모님께서 당신을 어떤 식으로 대하십니까? 보통 어머니와 아들처럼 대하십니까? 그보다는 하느님께 받으신 성모님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도구로 대하십니까?

야콥 : 성모님께서 세상을 위해 제게 메시지를 주실 때, 저는 그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저는 하느님의 도구일뿐입니다. 또한 저는 언제나 복되신



1981년 발현 초기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발현 소식을 듣고 전 세계에서 온 순례자들이 성모님을 만나기 위하여 발현산에서 기다리고 있다.

동정 마리아의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지상의 우리 모두는 성모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저는 개인적 체험을 통해 그것을 압니다.

질문 : 왜 성모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어머니가 되신다는 것입니까?

야콥 :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 바로 당신의 어머니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에 관해 알거나 모르거나 모든 사람을 위해 천국의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알거나 모르거나 당신의 어머니를 모든 사람의 어머니로 주셨습니다. 세상에는 자신에게 천상 어머니가 계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의 천상 어머니를 소홀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모님께서서는 당신 자녀 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으십니다. 성모님께서서는 하느님께 충실하십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지상에 있는 당신 자녀들 하나하나를 그들이 당신을 알거나 모르거나 사랑하시고 기르시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질문 : 야콥,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콥 : 성모님께서서는 우리 모두가 삶을 바꾸고 온 세상이 하느님께 돌아오도록 부탁드립니다.

질문 :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님께 돌아와야 합니까?

야콥 : 성모님의 평화의 메시지를 통해서입니다. 여기에는 믿음, 기도, 보속, 단식, 회개, 그리고 화해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질문 : 당신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당장 하느님을 믿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야콥 : 바로 그것 때문에 성모님께서 이곳에 오시는 것입

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삶을 바꾸고 하느님께 돌아오도록 부탁드립니다.

질문 : 현대의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야콥 : 네, 그들은 오늘날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깨달아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성모님의 메시지에 응답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렇게하는 젊은이들은 하느님께 영원히 감사드리게 될 것입니다.

질문 : 성모님의 메시지에서 부모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야콥 :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년기에, 아이들은 부모를 본받으며 자랍니다. 자녀가 20 살이 된 다음에,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본받을 수 있는 모범이 필요합니다.

질문 : 야콥, 가정에 관해 충고할 말이 있습니까?

야콥 : 그 가정에 돈이 많다면, 그 가정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면, 가족들이 그런 것에 익숙해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됩니다. 사치스러운 생활을 제한하고 돈쓰는 것을 자제하고 절약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특히 묵주기도를 바치십시오. 하느님을 여러분 삶의 첫자리에 모셔야 합니다.

질문 : 보속에 대한 예를 들어 주겠습니까?

야콥 : 네, 보속이란 쉬거나 편안히 지내는 대신 십자가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 산을 오르는 것입니다. 또는 친구 대신 친척을 방문하러 가고 자신을 기쁘게하는 것보다 하느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 : 야콥, 젊은이들은 어떻게 단식합니까?

야콥 : 어른이 단식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저는 열 살 때부터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빵과 물만 먹으며 단식했습니다. 성모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지향으로 단식해야 합니다. 단식의 가치와 의미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질문 : 성모님께서서는 매일 미사에 참례하기를 원하신지요?

야콥 : 미사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사는 우리가 하느님의 집인 교회에서 받는 가장 중요한 선물이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질문 : 성모님께서는 당신 개인을 위한 메시지도 주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위한 메시지만 주십니까?

야콥 : 대부분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성모님과 저는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이 성모님과 제가 매일 함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질문 : 야콥, 당신에게 회개는 무엇을 뜻합니까?

야콥 : 제가 어렸을 적에는, 하느님에 대해 그냥 알고만 있었습니다. 성당에는 갔지만, 정말로 하느님을 체험한 적은 없고 그저 몸만 성당에 갔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안에 살아 계셔야 합니다. 성모님께서 발현하시기 전까지 저는 그런 체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회개란 하느님께서 내 안에 사시고, 자신이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을 뜻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질문 : 하느님께서 내 자신 안에 살아 계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야콥 : 기도를 통해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 하느님께서 당신 안에 현존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질문 : 세상 모든 사람이 이 점을 깨닫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까?

야콥 : 네, 그것이 바로 성모님께서 이곳 메주고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안에 하느님께서 현존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질문 : 지상 모든 사람이 이것을 깨닫을 수 있을까요?

야콥 : 네, 성모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 각자



발현 초기의 메주고리에 야고보 성당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함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질문 : 예수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콥 :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라고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믿으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모두의 선택입니다.

질문 : 세상의 미래는 행복합니까, 아니면 슬프니까?

야콥 : 그 일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질문 : 우리의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콥 : 그분께서는 지상의 모든 사람이 천국을 갈망하기를 바라십니다. 성모님께서는 기도가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M

(다음호에는 성모님의 매일 발현을 보는 목격자인 마리아의 체험담이 연재 됩니다)



성모님 발현 초기 6명의 목격증인들



성모님의 발현을 보고 있는 어린 야콥출로

교회는 메주고리예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데니스 크로투 주교



2001년 4월 루지카의 집에는 60명의 캐나다에서 온 순례자들이 송별파티를 겸한 아름다운 저녁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모였다. 다음날 캐나다의 가장 추운 북서부 쪽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들은 메주고리예의 마지막 밤에 순례동안 서로 받은 치유와 은총에 대한 체험담을 나누기로 했다.

안내를 받았던 레리는 서로 불쾌한 일 없이 순례를 마무리 할 수 있어서 무척 만족했다. 메주고리예에서 보낸 일주일엔 성모님께서 많은 순례자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어 기도와 성사 안에서 많은 축복을 체험하는 시간이었다. 한 사람이 레리에게 일행들에게 할 말이 있어서 잠시 마이크를 쓰고 싶다고 말했다. 일행들에게 데니스로 불리운 그는 8일간을 함께 지냈지만 늘 신중하고 말없이 지내던 사람이라서 레리와도 대화가 없었다. 순례 마지막 날 밤에 흑시라도 불쾌한 일이 있을까 염려되는 마음으로 레리가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중요한 말이 무엇이지요?" 데니스가 대답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엘로나이프 교구의 주교입니다. 순례 마지막 날이니 일행들에게 저를 소개하고 메주고리예에 관한 나의 체험담 몇가지를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놀라움에 말을 못하고 있던 레리는 민망해서 붉어진 얼굴에 억지로 미소를 띄우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물론입니다.

당신이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뜻밖의 일입니다."

레리는 마이크를 잡고 기쁜 얼굴로 데니스를 소개했다. "여러분, 오늘 밤 이곳에는 매우 특별한 손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본인이 직접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니스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나다 북서부에 있는 매켄지 교구에서 온 프란체스코회 소속 데니스 크로투 주교입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메주고리예에 관한 일들은 무엇이든지 기쁘게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던 일행들이었지만 모두 할 말을 잃고 놀랄뿐이었다. 그러나 잠시 후, 감격에 겨운 일행들의 기쁨이 폭발하였다. 우리와 같은 박수소리와 일어서서 서로 등을 두드리는 사람, 웃기만 하는 사람, 감격으로 흥분되어 우는 사람들도 있었다. 레리도 데니스 주교와 지냈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힘차게 박수를 쳤다. 지난 8일동안 주교가 그들과 함께 있었지만 아무도 몰랐던 것이다! 크로투 주교는 감격하는 일행들에게 자신이 주교로서의 신분을 감추고 메주고리예에 오게 된 사연을 말했다. "저는 파올로 호닐리카 몬시뇰처럼 메주고리예에 왔습니다. 그분은 1984년 3월 러시아에서 돌아오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뵈었습니다. 교황님은 그에게 "파올로, 당신은 메주고리예를 다녀왔는지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성하, 아닙니다."라고 하자 교황님은 "왜

왜 사람들이 항상 메주 고리예에 다시 오기를 원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곳을 다녀오지 않았나요?"라고 물으셨습니다. 파올로 주교는 "교황청이 가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지요. 그러자 교황님은 가도 좋다는 몸짓을 하시며 "바티칸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신분을 감추고 메주고리예에 가보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돌아오면 당신이 본 것들을 제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제 신분을 감추느냐고 일행들과 가까이 지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에서 그랬습니다. 첫째로 메주고리예에 오는 신부들은 이곳에 오면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게다가 신부들은 성당의 제단에 앉아야 하니 신자들과 따로 있어야 하고 또한 고해성사와 성물축성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일반 순례자로서 메주고리예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가톨릭 세례를 받은 신자의 한 사람으로서 순례의 참 의미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주교로서 어떤 특별한 대접을 원하지도 않았으며, 제단에서 메주고리예 순례일정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니다. 그보다는 신자들의 자리에서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행동보다 말하기는 쉽지요! 일주일 동안 60명의 순례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당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며 살지요?'라는 말 한 마디 듣지 않고 지내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 교구의 주교로서는 절대 쉬운일이 아닙니다. 이중으로 힘든 일입니다! 심지어 선의의 거짓말도 하지 않고 제가 누구냐고 묻는 룸메이트 에드몬드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유감스러웠지만 제 통회는 그런 거짓말에 성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해 성사를 악용했어야만 했을지도 모르지요. 어느날, 저는 룸메이트인 에드몬드와 이런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에드 : 테니스, 당신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주교 : 저는 가톨릭 교육을 위해 교회에서 일하고 있지요.

에드 : 아, 가톨릭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군요.

주교 : 아니요, 교구청에서 일하고 있지요.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가 좀 더 편안한 대화를 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주었지요.

또 하루는 에드몬드가 제게 물었습니다.

에드 : 가족을 두고 오셨단 말이요?

주교 : 아니요. 저는 가족이 없어요.

에드 : 그렇다면 독신인가요?

주교 : 맞아요. 독신입니다.

에드 : 당신은 신부가 되고 싶은 생각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주교 : 알다시피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후로, 평신도들도 신부나 수녀가 되지 않고도 교회를 위해 보람있는 봉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치 줄다리기와 같은 대화를 하며 메주고리예에서 일주일 지내고 보니 이제는 소련 KGB에서 직업을 더 갖고 일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메주고리예 순례를 오게 된 또 다른 이유는 메주고리예에 관한 모든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또 제 교구의 신자들이 메주고리예 순례를 조직할 만한 의미가 있는 지를 알기 위해서 저는 일반 순례자로서 메주고리예에서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왔노라, 보았노라, 그리고 이겼노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메주고리예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사실 저는 타의에 의해 이곳에 왔습니다. 제 여동생 멧셀린이 메주고리예에 관한 정보와 책, 기사들을 계속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지요. 동생은 대단히 결의가 굳고 몸집이 작은 여자인데 결국 제가 잡히고 말았지요. 저는 알래스카 북서부 지대에 있는 옐로우나이프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이상 캐나다 북쪽에서 선교 사제로 지내면서 주로 인디언들과 이누이 에스키모인들을 위한 사목을 했는데 성모신심이 강한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도는 목주기도입니다. 그들이 메주고리예 순례를 온다는 것은 천국에 가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메주고리예는 그들의 믿음에 힘과 활기를 충족시켜 주고 마치 연못에 있는 고기처럼 즐거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메주고리예에서의 체험을 얼마나 감사하게 여기는지에 대하여 여러분께 말씀 드렸습니다. 이곳 메주고리예는 매우 특별합니다. 저는 이제 왜 사람들이 항상 메주 고리예에 다시 오기를 원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 때는 당연히 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가 이곳에 온 목적을 이루었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 희망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두고 가는 이곳 메주고리예에 언젠가 같은 비행기와 버스를 타고 다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일년 후, 크로투 문시놀은 공공연히 주교의 신분으로

메주고리예를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여동생 미셸린이 순례를 인도하였다. 다음은 두 번째 방문을 마친 주교의 증언이다.

"무엇보다 제 마음을 감동시킨 것은 사람들의 경건함과 믿음, 헌신, 그리고 체험입니다. 우리는 메주고리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믿음과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 가는 사람들에게 타 오르는 성령의 불길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변화무쌍한 세계의 역동과 과학의 기능은 전 세계 사람들을 시공을 초월하여 한올타리 안에서 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교구의 신자들의 신앙과 믿음을 향상시키고자 수 많은 방법을 시도하며 많은 돈을 신자들의 교육과 성장을 위해 쓰며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메주고리예 순례에서 본 신자들의 변화와 회개를 놓고 비교해 본다면 그 결과는 10/1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메주고리예 순례를 진심으로 추천하는 사람이 여기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사제로서 메주고리예는 가톨릭 교회의 진면을 알리는 좋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사람들의 변화를 보면서 현존하시는 하느님과 성모님께서서

이루시는 업적을 직접 느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제인 저에게 신자들의 고해성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어떤 사제가 이곳에서 단 한 시간만이라도 순례자들의 진솔한 고해성사를 듣고도 메주고리예에서 역사하시는 하느님께 대한 확신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저는 그 사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을 찾아오는 순례자들 중에는 자신의 죄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곳을 떠날 때가 되면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과 또 구원을 받고 죄를 용서 받았다는 것을 체험하고 굳은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돌아옵니다. 사제는 그들의 변화를 제일 먼저 체험합니다. 만일 어느 누가 메주고리예에서 사탄의 활동에 대하여 말한다면, 글썄요, 제 생각에 그는 제일 불쌍한 사탄입니다. 그 사탄은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결국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그 사탄을 천국으로 승진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M**

(엠미르 출판사, '메주고리예 베일에 감싸여진 아기'에서)

믿지않는 이들에게 주시는 성모님의 메시지



발현 목격증인 미리야나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저버리지 않으신다.
 헤아릴길 없이 크신 그분의 사랑은 당신을 알 수 있도록
 너희를 도와주기 위하여 나를 보내신 사랑이시다.
 그렇게 함으로서 나의 아드님을 통하여 너희는 하느님을
 진정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가족이 되게 하시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는 이 세상에서 홀로 있지 않음을 잊지 말아라.
 또한 나는 너희 자신의 유익함을 위하여 이곳에 부르지는 않는다.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유익함보다는 형제의 유익함을
 먼저 생각하는 나의 아드님을 따르는 이들이 되어다오.
 나는 너희가 내 아드님의 빛이 되기를 바란다.
 죄악, 절망, 고통과 고독의 어두움에서 방황하며 하느님을 모르는
 모든이들에게 너희의 삶을 통하여 길을 비추어주고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도록 하여라.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가 마음을 연다면 나는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다시한번 너희에게 간청하니 너희의 목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고맙다.

2011년 11월 2일 성모님의 메시지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의 티없는 성심에
더욱 가까이 다가와 나오.”

2011년 6월 25일 성모님의 메시지



평화의 모후 선교회 주관 2012년 성지 순례

메주고리에, 드브로브닉

* 2011년 12월 26일 ~ 2012년 1월 3일 (8박 9일)

폴란드, 프라하, 메주고리에, 드브로브닉

* 2012년 2월 19일 ~ 3월 4일 (13박 14일)

파티마, 스페인, 루르드, 이태리, 드브로브닉, 메주고리에

* 2012년 4월 29일 ~ 5월 14일 (15박 16일)

성모님 발현 31주년 기념, 메주고리에, 드브로브닉

* 2012년 6월 24일 ~ 7월 2일 (8박 9일)

메주고리에 세계 청년 국제 대회, 이태리, 루르드, 드브로브닉

* 2012년 7월 27일 ~ 8월 9일 (13박 14일)

문의처: 평화의 모후 선교회 610-366-9612 / 917-626-4314

홈페이지 : www.qpmm.org / e-mail : qpmm81@gmail.com



용서는 자신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이태리 밀라노를 떠나
메주고리에에서 살고 있는
유명 모델의 체험담



안야 골레치노브스카는 대형 기업들의 광고를 찍는 유명 모델이자 텔레비전 쇼의 진행자였으며 이태리의 시트콤에도 여러편 출연했던 모델이다. 그러나 이제 그녀에게는 메주고리에 공

동체에서 찾은 새로운 삶인 매일 묵주기도와 미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하루의 일과가 되었다. 또한 감자 껍질을 벗기고 마당의 닭들을 돌보는 일들과 청소를 하는 등의 평범한 일을 하고 있으나 다시 이태리로 돌아갈 계획은 없다고 했다.

폴란드에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안야 골레치노브스카는 이태리의 상류 사회로 진출하면서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다 갖게 되었다. 유명한 모델이자 텔레비전 쇼의 진행자였으며 <댄싱 위드 더 스타>의 이태리 방송에도 출연했었다. 2008년에는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생일 축하 파티에서 커다란 케익속에서 튀어 나오는 이벤

트를 연출하며 주요 언론의 머릿기사를 장식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이제 모두 지난 옛날 이야기가 되었을뿐이다. 폴란드 출신 이탈리아 연예인으로 2011년 27살이 된 안야 골레치노브스카는 올해 6월부터 메주고리에의 마리아 공동체에서 사제와 수녀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그녀가 많은 고된 노동과 기도생활에 익숙해지고 행복해하는 모습은 아름다운 미모를 자랑하던 이태리의 유명한 연예인으로서의 화려한 삶보다는 오히려 그녀의 고국인 폴란드의 연로한 사람들의 일상과 더욱 많이 닮아 있다.

그럼에도 안야 골레치노브스카는 예전 생활에 대한 미련이 없다. 오히려 그녀는 지금과 같이 행복한 적이 없었다고 하며 <가톨릭 헤럴드>지와 인터뷰에서 자신의 지난 날에 대하여 말했다.

"처음에 제가 메주고리에에 온 것은 여행 경비까지 대준 친구의 초대에 응한 것뿐이었습니다. 사제들과 교회라면 몸에 두드러기가 날 정도로 싫어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여행이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 후로 2년 동안 저는 잠시도 평화로울 수 없을 정도였죠. 제 인생을 통틀어서 한 번도 진정으로 행복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제가 진정한 행복이 아닌 환각속에서 살고있다는 것을 알고부터 우울했습니다. 세상에서는 특권을 누리는 상류사회에서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삶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단순하고 평범한 삶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저는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메주고리에에 머물 곳을 찾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죠. 안 그랬으면 창 밖으로 뛰어내렸을지도 몰랐으니까요. 가방 두 개에 짐을 싸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이탈리아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메주고리예에서 살고 있지요. 처음에는 며칠만 머물다가 가려고 했었습니다. 왜냐면 6월 25일부터 사르디냐의 포르토 체르보에 있는 억만장자 플라비오 브리아토레의 클럽에서 홍보직을 시작하기로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마침 그날이 메주고리예 성모님 발현 30주년 기념일이더군요. 여기서 닷새를 지낸 뒤 저는 그 계약을 파기하고 계속 메주고리예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가톨릭 헤럴드〉에 전한 그녀의 하루 일과이다.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서는 발현산에 올라가서 묵주기도를 바치고 내려와서 기도를 드리고 미사를 드리지요. 오전 중에는 일을 합니다. 방과 욕실들을 청소를 한 후, 빨래와 다림질도 해야하고 감자 껍질을 벗기는 일들과 야채 텃밭을 가꾸고 닭들도 돌보아야 해요. 그 후에는 다시 묵주기도를 바치고 오후에는 쉬고 6시에는 또 다른 기도를 바칩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탈리아 상류사회의 삶을 그리워하지 않는다. 메주고리예에서 시작한 그녀의 새로운 인생은 이탈리아에서 살던 삶과는 너무나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말했다. "전혀 그리워하지 않아요. 저와 오래동안 친하게 지냈던 많은 오랜 친구들은 행복해 하는 지금의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저를 위해서 일했던 가사 도우미가 했을 법한 일들을 제가 하고 있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 공감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었어요. 마치 지난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에 가난했지만 소박했던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행복했던 시절 말이죠.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만족스러워요. 이곳에서는 한 번도 제 것이 아니었던 가면들로 저를 위장하지 않아도 되고 사람들이 저를 돈만 벌여주는 도구로 생각하지 않지요. 세상에서처럼 가식이 필요하지 않고 하느님과 제 주변의 사람들이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주고 제 곁에 가까이 있어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떠나 이곳에 와서 순례자들이 종종 메주고리예에 두고 가는 "하느님의 옷"을 저도 입고 살아갑니다. 제가 갖고 있었던 세속의 옷들은 이곳 메주고리예와는 어울리지 않았거든요. 샤넬 구두를 신고 여기 올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커다란 생일 케익에서 튀어나오는 안야 골레치노브스카의 모습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그런 일들



이태리에서 모델로 활동하던 안야 골레치노브스카의 모습

은 그녀가 다시는 하지 않을 여러 일들 중의 하나일뿐이다.

"메주고리예에 온 이후 그만 둔 것들이 많지만 후회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지난 날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을 모두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과 참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것을 저의 체험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 오셨으며 그 사람들을 위하여 돌아가셨죠. 저는 제가 죄인들 중 첫 죄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인으로서 주님의 자비를 누리는 특권을 잃기 싫어요."

〈가톨릭 헤럴드〉와의 인터뷰를 마치면서 그녀가 한 말이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심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용서 받고 싶어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용서 받을 자격이 있어요. 용서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지 마세요. 용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속의 증오와 분노를 비워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느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해주신 많은 은총들을 담을 곳이 없습니다. 또한 메주고리예에 오기로 결정하셨다면 태양이 돈다든지 하는 기적들을 보려는 기대는 하지 마세요. 진짜 기적은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성모님께서 알아서 해주십니다. 오직 마음을 여는 것이 필요할 뿐이지요." **M**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 40년 동안 듣지 못하던 청각이 치유되다. -

2011년 10월 6일 지난주 이태리에서 메주고리예를 찾아 온 87세의 순례자 도미니꼬 마쉐리는 1970년 부터 40년 동안 줄곧 보청기를 사용해 왔다. 그는 9월 27일 메주고리예 야외제대에서 저녁 미사를 봉헌 하던 중 갑자기 사제의 강론을 생생하게 듣게되었다. 마쉐리의 부인은 남편과 말할 때 더 이상 큰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직도 믿기 어렵다고 한다. 메주고리예 성 야고보 성당 뒤 쪽의 야외미사 제대쪽에는 수 천명의 순례자들이 모여있었다. 도미니꼬 마쉐리는 그곳에서 청각에 대한 치유를 받고 40년 만에 보청기의 도움없이 맑고 깨끗한 소리를 듣게 된 새로운 삶이 지난 일주일 전부터 시작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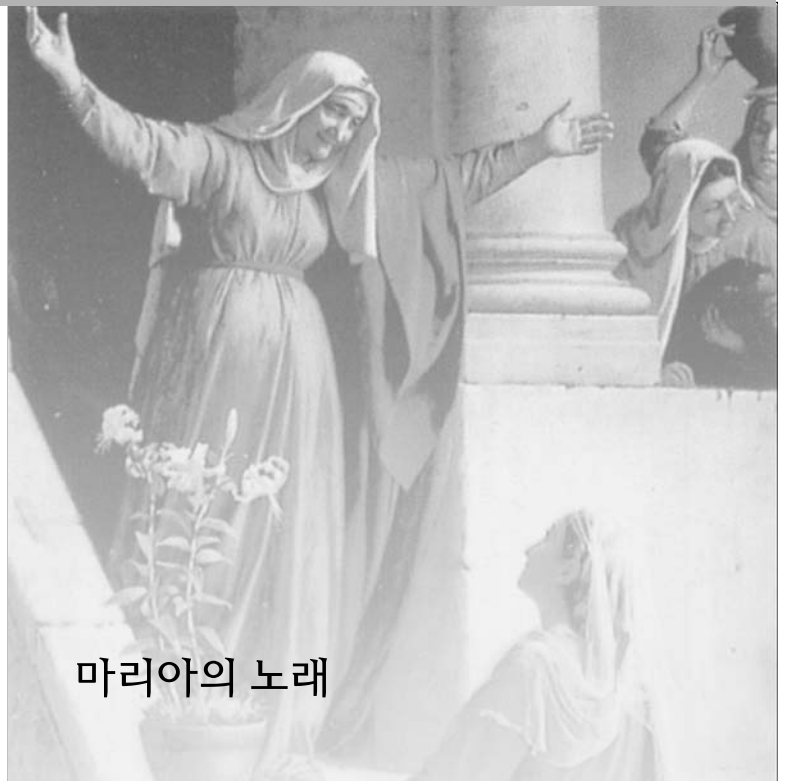
이태리 세스나에서 순례자로 온 도미니꼬 마쉐리는 전 생애를 통해 매일 미사에 참례한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지만 특별히 2011년 9월 27일 저녁 메주고리예의 야외미사를 평생 잊을 수 없게 됐다. 40년 동안 작은 소리조차 보청기가 있어야 들을 수 있었던 그의 청각이 미사 도중 보청기 없이도 소리를 듣게 된 것이다. 화요일 저녁 도미니꼬 마쉐리는 미사에 참례하러 갔을 때까지 이틀동안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는 완전한 침묵속에서 지내야 했다. 그는 이태리 볼로냐 지역 일간지 '일 레스포 델 깔리노'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보청기 배터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었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우리 순례단은 9월 25일, 주일 날 메주고리예 성지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내 두 개의 보청기 배터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완전한 적막속의 세계에서 홀로 지내야 했지요. 다른 사람들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지만 그들이

하는 말이나 소리는 전혀 듣지 못했으니까요. 메주고리예에서는 내 보청기에 맞는 배터리를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나는 완전 귀머거리 상태에서 순례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나에게 이제는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성 야고보 성당 뒷 편 야외제대에서 평소와 같이 신부님이 미사를 집전하고 있었다. 이틀동안 소리라고는 전혀 듣지 못한 적막의 세계에 살던 87세의 노인에게 다가온 위대한 날이었다. "화요일 나는 지팡이에 의존하여 발현산을 올라갔습니다. 그날 저녁, 내가 꿈에도 기대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녁 6시에 5명의 우리 순례단과 함께 성지 뒷 쪽의 넓은 광장 야외 미사에 참례하러 갔습니다. 나는 벤치에 앉아 있었으나 신부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례 신부님의 미사 전례에 응답할 수 없는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베마리아를 암송하는 신부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크게 들렸습니다. 나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전혀 듣지 못하던 것에 익숙했던 나에게 주례 신부님의 말씀이 크게 들렸을 때, 나는 마치 꿈을 꾸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내가 인조 보청기 아닌 내 귀로 직접 듣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순례 동료들에게 아무 것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식사 때 나는 큰 소리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배터리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디서 찾았느냐고 그들이 물었을 때 내가 하늘에서 받았다고 말하자 모든 사람들이 나의 청각이 치유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나를

껴안아주고 축하해주었습니다. 나는 목요일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40년동안 나와 큰 소리로 말하던 것에 익숙한 아내는 아직도 믿을 수가 없다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나에게서 큰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의사들과 교회가 결정할 일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기에, 월요일 의사와 전문가들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물론 지난 40년 동안 나를 조사했던 의사들은 전처럼 또 조사를 하겠지만요. 그날 저녁 메주고리에에서 일어났던 치유는 내 긴 신앙생활의 절정이라 하겠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께 대한 굳은 믿음과 성모님과 성인들께 대한 공경심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모험적인 삶도 살았지만 믿음만은 변함없이 지켜왔습니다. 항상 TV를 통해 메주고리에의 성모님의 발현을 보아왔으며 늘 메주고리에에 오고 싶었습니다. 그곳에서 있었던 기적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 나도 꼭 메주고리에에 가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내 삶에 새로운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지난 87년간 살아 온 내 인생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복되신 성모님께 감사드립니다." **M**

(www.peace.new21.net에서)



마리아의 노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루카 1:46-55)



나의 삶을 변화시킨 메주고리에

윤 일모(마리아) Oxnard, CA

18개월 된 어린 딸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 온 지 어언 25년이 되었다. 그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며 키워온 세 남매들은 어느새 대학교 4학년이 된 막내를 비롯하여 모두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하느님 안에서 성 가정이 되도록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다.

우리 가족들은 '나이 들어서 후회 안하기'중의 하나로 가보고 싶은 곳 가보기를 목표로 정하고 여행을 많이 다녔다. 성모님이 발현하시는 메주고리에도 가보고 싶은 곳 중의 하나였기에 성모님 발현 30주년인 올해 꼭 순례를 가게 해달라는 지향을 갖고 기도하고 있었다. 어느 날 가게에 한 손님이 들어오더니 내가 메주고리에 순례를 갔다 올 수 있는 비용 만큼 매상을 올려 주었다. 나는 성모님의 초대라고 믿으며 성모님께서는 절대로 나를 빈 손으로 돌려 보내지 않으실 거라고 큰소리로 농담도 했다. 그런데 순례를 가기 전, 9일 기도를 봉헌하면서 내 마음이 바뀌어 갔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모두 다 듣고 계시는 분에게 특별한 은총을 구하는 것은 욕심이라는 생각때문이었다. 순례를 떠날 시간이 가까워 올수록 내 마음을 비운만큼 담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주셨기에 휴가 떠나는 마음으로 편히 쉬다 오리라 생각했다.

기도 학교로 불리우는 메주고리에 마을은 수 많은 사람들의 모든 삶을 포용하는 듯 평화로운 분위기였다. 우리 일행들은 숙소에 가기 전 야고보 본당 앞에 모셔진 성모님께 인사를 드리고자 모두 버스에서 내렸다. 오른 손을 가슴에 대고 왼 손을 우리를 향해 내미시며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내 부름에 응답해 주어 고맙구나!" 라고 하시는 성모님의 모습을 보고 나는 그만 울어버렸다. 오랫동안 이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을 성모님을 생각하니 마치 친정 엄마를 만났을 때의 반가움과 죄송함이 교차하면서 마음이 저러왔다. 나는 성모님께 내 자신을 맡기며 이곳에서의 시간들을 성모님과 함께 진하게 보낼 것을 다짐했다.

이곳에서는 먹여 주고 재워 주니 내가 할 일은 성모님의 말씀처럼 오직 기도, 기도, 기도 뿐이었다.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라고 했다. 그동안 바쁘게 살면서 저만치 밀어놓았던 이야기들을 모두 쏟아놓고 고요함 속에서 주님의 말씀도 들으리라. 첫 날부터 생각나는대로 모든 기도 지향을 적어놓는 것이 좋다가에 내가 알고 있는 가정들의 필요한 것들과 기도지향들을 성모님께 봉헌하면서 열심히 썼다. 내 자신도 성모님께 봉헌하면서 앞으로 내 삶의 목표가 될 희망과 지향들을 열심히 적으니 8절지 3장이 가득 채워졌

다. "성모님, 제가 하느님 안에서 깨어 있는 삶, 그리고 예수님과 성모님 사랑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써놓고 보니 내 마음에 드는 기도지향이었다. 그 편지들은 모두 매일 성모님의 발현을 보는 목격증인 비스카에게 전해졌다.

메주고리에 마을은 성모님 발현 30주년을 맞이하여 세계 각국에서 찾아 온 참으로 수 많은 순례자들로 가득했다.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고 주민들과 순례자들 모두 진지한 모습으로 본당 행사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었다. 6월 23일 아침, 성모님의 메시지를 내적으로 받는 담화자 엘레나의 체험담을 들었다. 특별히 시편 113편에 대한 내용이 마음에 와 닿았다. 매일 오후에는 야고보 본당 야외 제대에서 메주고리에 특유의 거룩한 음악이 함께 하는 성시간과 성체 거동 및 치유 예절 시간이 있다. 그 날도 묵주기도를 마치고 미사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던 중, 서쪽 하늘 중천에 떠있던 태양이 갑자기 빛을 잃는 것을 목격했다. 어느새 달처럼 변한 태양 주위가 찬란한 무지개 색깔로 변하더니 보기만 해도 황홀하고 찬란한 빛을 발하며 좌우로 움직였다. 신비스러운 태양의 빛속에서 동그란 성체 몇 개도 함께 돌고 있었다. 오직 창조주이신 하느님만이 만드실 수 있을 그 태양의 아름다운 빛을 말로 표현하는 것에 대하여 한계를 느낄 수 밖에 없는 것이 참으로 아쉽다. 우리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은혜로움속에서 미사를 봉헌했다.

다음 날 6월 24일은 새벽 3시에 십자가 산에 올라가는 날이었다. 캄캄한 밤이었지만 조금도 망서리거나 주저하는 이 없이 모두 함께 산으로 출발했다. 우리 일행들은 어둡고 거친 돌 산길에 있는 예수님 수난의 14처 기도를 하면서 산을 올라 갔다. 제3처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느껴졌다. "내가 가시관을 쓰고 채찍질 당하면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맨발로 골고타 언덕을 올라 갈 때 받은 나의 고통을 너는 얼마나 알고 있느냐? 너의 교만함을 봉헌하고 겸손하여라."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체험을 하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면서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예수님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드리고자 봉헌하는 마음으로 열린 신발을 벗었다. 2km의 돌산을 한 걸음, 한 걸음, 맨발로 올라가면서 양쪽 발바닥이 너무 아파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나는 예수님 처럼 가시관도 쓰지 않았고 십자가도 없었는데... 더구나 나는 양말이라도 신었는데 맨발이었던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고 힘드셨을까... 나의 죄 때문에 목숨을 내어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가슴속에서 솟아나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통곡할 수 밖에 없었다. 각 처로 향하면서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를 부를 때는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랑하는 아들을 바라보면서도 침묵하신 성모님의 고통이 뼈속 깊이 느껴졌다. 나는 하나 밖에 없는 내 아들이 다칠세라 늘 마음조이며 살아왔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 길을 향해 내놓아야 하는 성모님의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를 나는 듣지 못했고, 퍼렇게 피멍이 들었을 성모님의 심장을 나는 느끼지 못했다. 지난 삶을 되돌아 보니 성모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성모님과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에 감사드리기 보다는 힘든 것은 외면하고 필요한 것만 청하면서 사랑 받기만을 원했었다. 그것도 모자라 불평 불만의 수 많은 보따리들을 예수님과 성모님 앞에 펼쳐 놓고 십자가 위에 무거운 짐을 더 올려 놓으면서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나의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통회했다.

십자가 산 정상에 올랐을 때 아침 해가 환하게 떠오르며 밝은 빛을 비추어 줄 때는 변화될 앞으로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아 기뻐다. 십자가 밑에 앉아 양말을 벗고 신발을 신으려고 할 때 나는 깜짝 놀랐다. 양말 바닥이 얼룩져 있어서 발바닥이 부르트듯 줄알고 발바닥을 들여다 보니 멀쩡했다. 자세히 보니 그 얼룩은 십자가 모양의 꽃이었다. 나는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니 감사할 뿐이었다. 산길을 내려 올 때는 평화가 마음 가득했고 벽차 오르는 기쁨에 저절로 성가가 흘러 나왔다. 6월 24일, 저녁 미사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내 부름에 응답해 주어 고맙구나!"

치유 예절이 끝나고 10시부터 있을 성시간에 가려고 하는데 말가리다 자매님이 오늘 밤 11시에 성모님께서 발현산에 발현하시니까 함께 가자고 말했다. 하마터면 놓칠 뻔한 순간을 성모님께서 함께 하시려고 불러 주셨음에 감사드렸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셋이서 급히 택시를 타고 발현 산 동네 입구까지 가서 산을 올라갔다. 발현산은 이미 많은 순례자들이 모여서 묵주 기도를 하고 있었다. 11시가 가까워오자 별이 초롱초롱한 밤하늘에 갑자기 천둥과 번개가 쳤다. 하늘을 두 쪽으로 나누는 큰 번개는 처음 보았다. 발현 목격증인 이반이 묵주 기도를 중단하고 성모님을 뵈고 있었다. 세 천사와 함께 황금 베일을 입고 발현하신 성모님은 무척 행복해 보이셨다고 한다. 하느님께서 살아 계심을 이세상에 알리려고 오시는 성모님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시고 현존하시는 모습으로 오신 것이다.

꿈 같은 많은 일들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나는 다시 한번 메주고리예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메주고리예를 한 마디 말로 표현하기는 불가능하다. 직접 와서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장소이고 각자에게 주어지는 은총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많은 아쉬움들을 뒤로하고 밭길 닿았던 곳마다 은총이었던 순간들을 내 마음안에 깊이 간직하면서 짐을 썼다. 그리고 멀리만 느껴졌던, 어려웠었던 예수님과 성모님이 아닌 사랑으로 살아계신 예수님과 성모님을 모시고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딸이 양말바닥에 새겨진 꽃 십자기를 액자에 넣어 주었다. 그런데 양말에서 진한 꽃 향기가 풍겨 나왔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성모님께서 나의 기도 지향을 예수님께 전구해주셨다는 뜻으로 꽃 향기로 주신 것일까... 사람의 몸 중에서 가장 낮은 곳, 냄새나고 지저분한 양말 위에 향기를 주신 뜻은 무엇일까... 성서 시편 113편을 펼쳐 보았다. 성서 본문에 대한 해설<주>을 읽어 보니 "알렐루야!"로 시작되는 이 시편에 대한 해석에는 "하느님의 신비를 찬양하는 노래이다. 초월자이신 절대자께서 피조물과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 신비스런 모습으로 현존하신다." 라고 써어 있었다. 예수님께서 더럽고 누추한 외양관에서 겸손하게 태어나신 의미를 생각해 보았다. 주님! 티 없이 깨끗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에 오셨는데... 저희들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요? 각박해지는 현실 속에서도 하느님의 자녀로써 겸손과 사랑을 실천하자는 다짐을 해본다.

이번 메주고리예 순례의 가장 큰 기적은 내 자신의 변화이다. 나의 지난 날들은 영성적인 일보다 세상적인 일에 더 많은 관심과 시간을 허비했고 머리로, 입으로만 하던 신앙 고백을 마음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신앙인으로 거듭나야겠다는 알게된 전환점이 되었다. 이제야 철이 들어 성모님께서 주신 영적인 무기인 5개의 조약돌을 실천하는 것이 앞으로 삶의 목표가 되었다. 일이 끝나면 운동하러 가던 것을 그 시간에 있는 매일 미사에 참석하고 마음을 다한 묵주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었다. 한달에 한 번 고백 성사를 하되 같은 고백을 두 번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단식과 희생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TV 보는 시간을 줄이고 매일 성서를 읽고 있다. 파티 모임이 아닌 묵주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성모님께서 처음 발현하셨던 24일에 함께 모여 묵주 기도를 하고 있다. 하느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하느님 안에서 깨어있는 삶으로 성모님께서 인도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면서 지속적인 인내를 청하며 기도하고 있다.

성모님! 세상 꽃은 곧 시들고 향기가 사라지지만 저의 부족한 기도에 함께 해주시어 하느님과 예수님께 기쁨이 되고 영원토록 찬미와 영광드리게 하소서! 아멘. **M**

Queen of Peace Missionaries www.qpmm.org

발행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발행/편집인 : 박창득 몬시놀
 지도신부 : 박창득 몬시놀 (뉴욕대교구)
 자문위원단 : 김한기 신부, 요조 조브코 신부, 김기수 신부,
 이종하 신부, 백남국 신부
 웨인 와이블, 남기옥 (선교학 박사)
 웹관리자 : 임 베드로, 박 여거스틴
 편집위원 : 최미정, 남 미카엘라, 김성주
 인쇄 : 동방인쇄출판

미국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0230
 Tel : (610) 366-9612, Fax : (610) 366-9614
 E-mail : qpmm.org@gmail.com

캐나다 1624 50 Avenue S.W., Calgary AB T2T 2V9 Canada
 Tel. 403-288-0469 E-mail: jyleecan@hotmail.com

한국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1동, 719-2 백상 프라자 109호
 우편 번호 480-834
 연락처: 010-8633-3540

십시일반 후원회원님들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강바오로, 강선주, 강옥주, 강유정, 강찬구, 구옥림, 곽복화, 권금옥, 권테레사, 권효정, 김건일, 김경숙, 김경희, 김금성, 김단심, 김마테라, 김마리아, 김명숙, 김미경, 김봉녀, 김성인, 김세록, 김소영, 김순자, 김아네스, 김안나, 김영서, 김영옥, 김영자, 김테이비드, 김영주, 김옥희, 김원경, 김의순, 김재영, 김정미, 김정자, 김춘자, 김학실, 김화용, 김효안, 김효정, 김혜숙, 김희경, 김희정, 나숙희, 류기연, 문경희, 문로사리아, 문안나, 문유스티나, 민무연, 민카타리나, 민헤레나, 박병칠, 박선영, 박소피아, 박순덕, 박미경, 박아가다, 박서희, 박안나, 박영순, 박영화, 박정자, 박정희, 박혜성, 박희숙, 백안셀모, 변선교, 서남숙, 서애자, 서정열, 성순희, 송소인, 송정순, 신순덕, 신태남, 신현철, 신혜경, 심세실리아, 심혜란, 안권, 안세베리노, 양경숙, 양안나, 엄봉화, 엄선미, 엄토마스, 여선옥, 오글로리아, 오찬임, 원명희, 원영주, 유경희, 유광문, 유국현, 유규희, 유보영, 유병필, 유베로니카, 유정선, 유제영, 윤경이, 이운, 윤병희, 윤운선, 윤윤옥, 윤아네스, 이경호, 이탁, 이계숙, 이광자, 이다영, 이테레사, 이동우, 이마리아, 이봉주, 이비비아나, 이상환, 이소피아, 이순세, 이순자, 이엘리자벳, 이연기, 이유선, 이윤영, 이영분, 이은경, 이은희, 이의정, 이준용, 이진연, 이진민, 이호인, 이종천, 이정우, 이창재, 이철효, 이카타리나, 이형택, 임미카엘, 임주자, 장금실, 장테레사, 잔슨윤숙, 정금희, 정마리아, 정명좌, 정순자, 정영식, 정현숙, 정현지, 조은자, 조안나, 주숙은, 주정숙, 지정해, 지니김, 진도미니카, 진은필, 차수미, 최경숙, 최동숙, 최미카엘라, 최지희, 최희순, 팽정숙, 표상순, 한경렬, 한순희, 한옥림, 한정애, 허남기, 홍경복, 홍복희, 황금자, 황계자, 황계희, 황옥희, 황지희, 홍성숙

Joo D. Kim, Jae Kang, Lisa Rigoni, K. Larcenaire, Henry L. Ji, David Burger, Insuk Mullins, Nansoon Buffington, Henry Yerger, Myong Russel, Joanna Bogusky

성모님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할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선교회에서 지난 11년 동안 발행해 온 성모님의 소식지 '평화의 모후'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발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선교회가 성모님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형제 자매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재정적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평화의 모후 선교회는 성모님의 부르심으로 설립된 가톨릭 비영리단체 법인입니다. 후원금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예금주 / Queen of Peace Missionary
은행 : WELLS FARGO Bank
구좌번호 : 2000012394184
송금번호 : ABA# 031201467

문의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610-366-9612
E-mail : qpmm.org@gmail.com

한국 예금주 / 평화의 모후 선교센터
은행 : 농협 은행
계좌 : 351-0404-6506-03

문의처 : 평화의 모후 선교센터 010-8633-3540
e-mail : qpmm.org@gmail.com



설터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나이다.

어머니시여 모후시여, 나는 오로지 당신 것
내 모든 것이 또한 당신 것 어머니시여 모후여,
나의 어머니 아버지께 비실 때마다 당신은
무엇이나 다 얻으시니 당신은 모후 내 어머니
이몸과 마음 드리오니 받아 주소서 어머니
남모르는 땀 내 피와 눈물 받아 주소서 어머니
(레지오 마리에 단가)



Queen of Peace Missionaries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0230

Return Address

성탄의 축복과 함께 2012년 새해에도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도신부 :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뇰
평화의 모후 선교회 봉사자 일동

PRSR1 STD
US POSTAGE PAID
ALBRIGHTSVILLE, PA
PERMIT NO. 5